

미니시리즈 2권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

10 Days
공부 분할

예수님 안에 거함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

HELMUT HAUBEIL
헬mut 하우바이

예수님 안에 거함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

HELMUT HAUBEIL
헬mut 하우바이일

열매 맺는 삶

예수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요 15:5)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 하신다: 내게로 오라!(마 11:28) 누두든지 예수께로 오는 사람은 또한 머물라는 초청을 받는다.(요 15:4) 이것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 “계속하여 그분의 영을 받는 것
- 그분의 봉사사업에
- 남김없이 드리는 생애”를 뜻한다. 시대의 소망 676

이 설명은 진실로 나의 눈을 열었으며 하나님과 나의 동행을 명확히 하였다. 나에게 이것은 행복한 그리스도인 생애의 비결이다.(요 15:11) 많은 사람에게 기쁘고 충만한 생애로 가는 길을 보여 주는 것이 나의 기도와 특별한 바램이다. 이 말씀들은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 시리즈의 세 책자들의 기초이다.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 시리즈의 세 책자들 사이에 있는 상호 관계는 무엇인가?

첫째 개인적인 부흥의 계단들

성령으로 충만케 됨

그대는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계속하여 그분의 성령을 요청하고 받는 것이다.

둘째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거리낌 없이 드리는 생애이다.

셋째 예수님과 일하는 성령 충만한 일꾼들

그대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모든 찬란한 결과들을 가지고

그분의 봉사사업에 거리낌 없이 드리는 것이다.

격려

개인적인 연구를 따라 두 사람씩 매일 함께 이 기도력을 연구할 때, 이 귀중한 진리들은 특별한 축복이 됨을 경험이 말해준다. 부부에게는 두 배의 축복이 있다! (다른 사람과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또한 매일 혹은 한 주에 한번 그룹이 대화와 기도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매우 격려가 될 것이다.

목 차

제 1 장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

- Day 1** 그대는 예수님의 가장 능력 있는 기별에 익숙한가?
성령께서는 하시는 직무는 무엇인가?
- Day 2**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비유에 계신 성령. 누룩에 대한....

제 2 장 예수께 순복함

- Day 3** 나는 내 의지를 잃어버리는가 아니면 더 강해지는가?
- Day 4** 예수께 나를 순복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한다는 것인가?

제 3 장 예수께서 그대 안에 거하심

- Day 5**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생애에 어떤 효력이 있는가?
궁극적인 성취: 하나님의 충만으로 물든 존재
- Day 6**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효력들:
우리는 어떻게 죄의 능력에서 구원을 얻는가?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다시 “육신”이 되는가?

제 4 장 예수님을 통한 순종

- Day 7** 어떻게 하면 나는 즐겨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왜 기쁜 일인가?
- Day 8**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한 순종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심: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제 5 장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에 이르는 신앙

- Day 9** 신자간의 하나 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가족과 세상에 매력이 되게 하는가?
우리 안에서 생긴 어떤 변화가 우리를 증인 되게 하는가?
- Day 10** 부흥은 어떻게 사명이 생기게 하는가?

1장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예수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능력 있는 기별에 익숙한가?

성령께서 가지신 직무는 무엇인가?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특별한 호소: 성령을 구하라

예수께서는 한 특정한 성경절에서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단호한 명령을 주셨다. 나는 예수께서 이보다 더 마음에 간직하도록 강조하시고 사랑스럽게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아무 다른 성경절을 찾지 못했다. 이 성경절은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에 대한 그분의 교훈에서 발견된다. 거기서 그분은 성령을 구해야 한다고 열 번이나 강조하셨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 11:9-13)

이 몇 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는 동사 여섯 번을 사용하셨으며 그 후 그분은 “구하라” 대신에 행동 동사 “찾으라”를 두 번, 또한 행동동사 “두드리라”를 두 번 더 강조 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으로 채움을 받기 위하여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구하라”는 헬라어 동사에 연속시제가 사용되었으며 그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요청이 긴급한 일일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분은 이 감동적인 초청으로 성령에 대한 욕망을 일깨우기 원하신다.

이 긴급한 초청은 만일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계속하여 간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놓칠 것이라는 예수님의 확신을 나타낸다. 그분은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에게 환기시키신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축복들을 계속하여 받기를 원하신다.

에베소서 **5:18**의 뒷부분을 주석하면서 요한네스 매겔은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릇과 같이, 한번 채워진다고 언제나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채워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 문장[엡 **5:18**]은 또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너희는 계속하여 그리고 항상 새롭게 자신을 성령으로 채우라.’ 침례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은 주어진 풍성한 선물은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만일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성령의 임재가 다시 임하셔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 생애의 모든 영역을 채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적 삶이 시들지 않도록 새로 채워져야 한다.

성령의 채우심은 우리가 그분을 양적으로 더 많이 소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 더 많이 소유하셔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신자들에게 계속하여 성령으로 채움을 받으라고 명한다. 침례는 한번이지만 여러 번의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성령을 위한 기도에서 예수님의 교훈의 이 부분은 독특한 과정이다. 성령은 그분과 함께 모든 다른 선물들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 곧 분명한 그분의 사랑의 증거다.

그런 가치 있는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주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그 선물을 참으로 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요한복음 **7:37**을 가지고 성령을 매일 구하는 습관을 가졌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것은 주님 제 마음에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이다.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 어떤 사람의 보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감: 한 자매가 내게 편지를 보냈다. “나는 요즈음 나의 친구와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과 **40일** 기도서를 번갈아가면서 세 번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험과 기도 생애는 우리가 이 책을 발견하기 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갈망하였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분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가 위하여 기도드리게 사람에게 역사하시는지 나타내신 것은 아주 놀랍습니다.” S 자매.

예수께서 우리의 생애에 들어오심: 또 다른 분도 이 책들에 대하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것들은 내 생애에서 크게 또 오래 기다리던 축복이 되었습니다. 많은 다른 교인들과 우리 교회의 한 자매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험가운데서 항상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의 생애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는지 경험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한 계단 한 계단 그분께로 가까이 이끌고 계십니다.” K 형제

성령님은 성취된 생애의 원천

예수님에 따르면 그분은 왜 이 지상에 오셨는가? 그분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이 재림 후에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삶을 경험하기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변화된 생애의 원천은 성령이심을 보이신다.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7:37-39)

“생수의 강”-이것은 성취된 생애와의 좋은 대조(비교)가 아닌가?

지상에서 그분의 생애 동안에

예수께서는 어떤 모본을 남기셨는가?

마리아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수태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마 1:18) 우리는 그분의 침례 후에 기도하셨을 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눅 3:22)셨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분이 매일 성령을 받으신 일이 필요하고 중요하였는가? 엘렌 화잇은 “아침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었고 매일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시조 1895.11.12)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이 일에서 우리에게 모본이 되신다. 우리는 자문해보아야 한다. 만일 예수께서 매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하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겠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관심사를 이해하였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에베소서 3:16,17에서 그는 성령 안에서 강하게 되라고 권면하며 4:30에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5:18에서는 권한을 받은 사도로서 그는 에베소인들과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혹은 다른 말로 “스스로 계속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다시 성령으로 채움을 받으라”고 호소한다. 그러므로 매일 성령으로 채워짐은 영적생애와 그리스도인 성장을 위한 매일의 경험에 요긴하다.

“하나님께서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실물, 145)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감화력 아래 완전히 곧 그분으로 완전히 ‘채워짐’을 말한다. 이것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18 하단에서 헬라이어 동사 ‘채움’의 시제로 설명하였듯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어떤 것이다.”(성경연구지침 2014.7.17)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성령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그분 대신 그들에게 오실 성령을 말씀하심으로 기쁨과 희망을 전하셨다. 그분은 요한복음 16:7-14에서 성령의 기능들을 제시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새롭고 더 좋은 해결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셨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것은 새로운 해결책 곧 그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은 그분이 실제로 여기 계시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현재 어디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우리 각자의 곁에 계실 수 있다.

불신과 의심을 떠나 예수님을 믿음

성령께서는 세상 사람의 눈을 여는 임무를 가지셨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성령께서는 라오디게아인의 눈을 열 수 있는 단 한분이시다. 그분은 세속화된 사람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열망과, 미지근한 그리스도인가운데서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열망을 일깨우려하신다. 그분은 다른 모든 죄들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보여 주신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그대는 예수님을 믿는가? 신앙의 진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표는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온전한 순복의 문제이며 모든 일에서 그분을 따르려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신다. 우리가 성령으로 채움을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귀중하고 위대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 되실 것이다. 예수께 대한 아주 더 많은 감사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하심을 받음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의 의에 대하여 열어주신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분의 희생을 아버지께서 받으셨고 그리하여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으니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사랑을 행사하시고 또한 동시에 의로우셨다. 성령께서는 매우 귀중한 이 교환에 우리의 눈을 밝히시기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분께 자신들을 의탁한 사람들로부터 모든 죄를 취하시고 그분의 의를 주신다. 이 가르침은 성경의 중심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대안(다른 방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심

성령께서는 또한 이 세상 왕이 이미 정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그의 결국은 임박하였다. 우리가 자주 시험에 빠지며 이 지상에서 연약하게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요한일서 **5:1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악한 자가 그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NIV)라고 말한다. 우리 안에서 통치자의 교체가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하기를 원하신다.

다른 한편 성령께서는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의 눈을 밝히기 원하신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함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지적함으로 두려움을 통하여 사람들로 그분을 믿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심판이 오고 있다는 지식은 많은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자극이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불공정할 것이다. 심판은 우리의 결정을 도와준다.

성령께서는 진리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심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거짓 견해들, 오류들 그리고 유혹들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그분은 또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진로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신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어진다. 보혜사의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소망, 671)

성령께서는 미래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심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미래를 선포하는 임무를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래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령께서는 미래에 대한 더 많은 빛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임무를 가지셨다. 우리가 그분께 여지를 드릴 때, 그분은 또한 예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실 수 있다.

계시록 2,3장에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들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 2:7)라는 예수께서 주시는 모두 같은 도전으로 마치는 것은 놀랍지 아니한가? 예수께서는 성령께 들으라는 이 초청을 우리 곧 마지막 교회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와 마음이 있는가?

성령을 통한 능력

예수께서는 마지막 말씀에서 성령의 사역을 언급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성령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우리가 그분을 증거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기능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한 성향들을 이기며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성령을 주셨다.”(소망, 71)

성령으로부터 온 능력은 또한 건강을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건강전도 지도자훈련 책임자 단 매킨 토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건강 법칙을 실천에 옮기는 동력과 관련된 건강정보이다. 그것은 변

화를 위한 능력과 함께 해야 한다.” 여기서 그것은 복음의 능력, 더 정확히는 성령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그분은 변화를 가져 오신다. 우리 자신들이 건강에 이르는 더 나은 길을 실천하고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다.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부흥의 요소들을 실천에 옮김

한 교회로서 우리는 이미 부흥을 위해 얼마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마크 핀리가 말하는 것처럼 “부흥에 대한 성경적 요소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시 부흥케 하소서, 26)

교회의 부흥은 각 개인들의 부흥에 달려있다. 개인적인 부흥을 위한 단계들을 오르도록 그대에게 호소해도 좋겠는가? 이것은 더 많은 능력과 충만한 생애, 참으로 기뻐하는 신앙생활로 그대를 인도한다.

새 마음이 왜 필요한가?

예수께서는 미련한 처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마 25:12)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결혼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 까닭은 영적 생애에 있는 부족 곧 성령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뜻하는 기름의 부족이었다. “미련한 처녀들”이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마음의 진지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성품을 묘사한다.

우리는 죄로 기우는 본성을 가졌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이기주의자이며 이 이기적인 본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이기주의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품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예수께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또한 아무도 이전의 상태로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께,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에 달려있다.(요 17:3) 무엇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의 구원받는 개인적인 관계없이 유혹받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밀접하고 정서어린 친밀감과 같은 것이 아니다.”(40일 기도, 2권, 112) 이것은 예수께서 왜 성령을 위해 계속하여 구하라고 호소하시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대는 매일 온전한 굴복과 믿음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전능하신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는
한 개인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때에
그대를 부르고 계신지도 모른다.

(에 4:14-16을 읽으라)

개인적인 숙고와 토의 지침

1. 예수께서 그대의 마음에 성령에 관하여 어떤 긴급한 감명을 주고 계시는가?
2. 성령을 위하여 간구함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모본이 되셨는가?
3. 예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의 다양한 기능들은 무엇인가?
4.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성취하시는가?

우리의 기도 시간

-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매일 성령을 구하며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필요를 깨닫도록
 2. 불신과 연약한 믿음에서 떠나게 해주시도록 약속들을 주장하라.
 3.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의미를 더욱 밝히 깨닫도록
 4. 잘못된 생각들, 실수들, 유혹들에서 자유 하도록
 5. 예수님과 그분의 봉사사업에 절대적인 순복을 하도록

1장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누룩에 대한 비유에서 성령을 말씀하심

누룩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대가 처음 그 비유를 읽었을 때, 그것이 성령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눅 13:20-21)

누룩 혹은 이스트는 모든 종류의 빵을 굽는데 사용된다. 그것이 밀가루에 넣어지면, 반죽을 더 부드럽고 가볍게 만드는 발효작용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사람의 입맛에 더 맛있게 만들어진다.

예수께서는 이 예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특정한 원칙들을 분명히 하셨다. 비유에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말한 것처럼 누룩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과정 곧 매우 적게 시작하지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해준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기심 대신에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

이 비유의 한 가지 의미는 예수께서 세상에 복음의 감화력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이다. 복음은 적게 시작하였지만 나중에는 온 세상을 침투할 것이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떻게 생애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지 보여주고 계신다. 누가복음 17:20,21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다.

1세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 중에 있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생애 안에서 오늘 시작한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를 때,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가시적인 왕국이 시작된다.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을 보기 원한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다. 다음은 그 비유에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다.

변화시키는 능력은 조용히 역사함

“구주의 비유 가운데서는 누룩이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실물, 96) “변화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

루어질 수 있다.”(실물, 96) 여기서 누룩은 골고루 퍼지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내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성경시대에 첫 성령의 강림은 때때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징후들을 동반하였다. 그러나 우리 안의 성품변화는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때에 조용히 일어난다. 그 후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발견한다.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든다. 이와 같이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성화되고 양심은 각성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특성을 받게 된다”(실물, 98-99)

하나님께서서는 왜 우리가 그 결과를 볼 때까지 우리를 아주 조용히, 아주 감지하지 못하게 변화시키시는가? 천연계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때 일어나는 것처럼 변화를 위하여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참나무 같은 강한 식물은 매우 천천히 성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소망하는지 시험하시는가?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생애를 주기 원하신다. (요 15:1-8; 갈 5:22을 보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밖에서 오며 우리 안에 있지 않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첫째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써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실물, 96)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성품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우리는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숙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 매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입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취미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성화시키며 인간 전체를 고결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1기별, 374) 예수께서 주시는 이 중요한 충고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반

대된다. 인본주의나 비밀종교든지, 인간 철학이나 어떤 교육의 분야든지 그들이 전하는 기별은 개발하여야 할 능력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만 이 방법으로나 저 방법으로 일깨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깨달음”에 대하여 자주 말한다. 이 조건들 아래서 자기깨달음의 결과는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는 디모데후서 **3:1**에서 그것에 대하여 읽을 수 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기주의가 팽배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자기깨달음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깨달음 뿐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기깨달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중요한 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는 성품을 변화시키는 아무 능력이 없다. 그것은 밖에서 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9-13**에서 우리가 성령을 계속하여 간구해야 할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신다.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매일 성령으로 다시 채움을 받으셨다. 우리에게 그것은 더욱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일 주기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부부가 매일 아침 포옹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우리를 포옹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한다. 엘렌 화잇은 이 비유에 대하여 말한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재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실물, 96-97) **II** 차 세계 대전 동안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한 가지 곧 사람만 말고는 모든 것에 대한 지배력을 가졌다. 사람은 인간의 영향력만 가지고 급진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세상 밖에서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적 사람이 매일 새롭게 된다고 말한다. (고후 **4:16**) 매일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아침에 그것을 첫째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역사하심

예수께서 누룩에 대한 비유 가운데서 가르치신 그 다음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성령의 팽창시키는 효력을 소유하는 때,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속이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진다. 외적인 개선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

케 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이런 악습, 저런 악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실물, 97)

더 나아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자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성향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실물, 97)

우리 안에서 부흥이 증진되는 때,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볼 것이다. 랠프 루터는 언급한다.

“예수께서는 근본이 변하지 않은 실제 생애 곧 단지 마음속에만 있는 태도에 불과한 신앙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 런고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소망, 805)

요약하면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 생애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감지할 수 없게 일하신다. 우리는 자주 결과들만 본다.

▶ 우리의 생애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 밖에서 와야 한다.

▶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나아간다.

나는 실물교훈에서 누룩의 비유 장을 읽도록 강권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성령께 경청하라

그대는 하늘 영광중에 예수께서 마지막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아는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 3:22) 예수께서는 성령께 경청하라고 우리 각자를 부르시며 그것이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변하다니요!?

예수께서 나를 진정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아름다운 그림을 예로 들어보자. 그 그림의 가치는 사용한 재료의 품질에 있지 않다. 질이 낮은 소량의 물감일지라고 전문가의 손에서 가치 있는 그림으로 변화될 수 있다. 것처럼 우리는 죄스러운 본성 곧 “저질”의 재료를 가졌다. 대 예술가에 의해 이 “재료”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일을 하기 원하시며 또한 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은 그대와 나를 지신을 영화롭게 하는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다. 매일 자신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드리고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대 안에서 그리고 그대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일에 놀라게 될 것이다.

한 노인이 런던 다리에 앉아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모자 속에는 다만 동전 몇 잎 만 달랑 있었다. 한 사람이 그를 지나쳤다가 돌아와 노인에게 말했다. “당신의 바이올린을 잠시만 내게 빌려 주시오.” 그리고 그는 아주 아름답게 연주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마침내 교통을 마비시키기까지 하였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 니콜로 파가니니였다.

만일 그대가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이 바이올린 제일 주자로 연주하든지 아니면 그대가 대 연주가의 손에 그대의 삶의 바이올린을 맡기든지 그것은 그대의 선택이다.

한 교사와 그녀의 한 학생의 간증

일 년 전쯤 내 교회에서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이라는 책이 나누어졌을 때, 나는 매우 속히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미 그것을 읽는 동안 나는 이전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더 많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나를 황홀케 하였고 내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책의 부록에서 나는 다음 제안을 발견했습니다. ‘교육적 연구는 우리가 철저히 중요한 주제를 이해하려면 여섯 번 혹은 열 번 읽거나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장려의 말은 나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것을 적어도 한 번 시도하라. 그 결과는 그대를 확신시킬 것이다.’

나는 그것을 경험하기 원했고 세 번째 읽고 있을 때 그것은 이미 나를 사로잡았으며 나는 우리 구주에 대한 큰 사랑을 느꼈으며 그것은 내가 온 생애 동안 갈망하던 것이었습니다. 두 달 안에 나는 그것을 여섯 번 읽었으며 그 결과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면 그분의 맑고 친절하며 사랑스러운 눈을 볼 수 있을 것같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나는 우리 구주 없이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깨면,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경험하기 위하여 아침 예배시간을 그리워하였으며 그 하루 종일 나는 성령께서 대화중에 나의 생각들을 도와주실 것과 가르치고 강의하는 동안 내가 본 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조용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아이가 나의 주목을 받으려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다루는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후로 나의 일터에서의 나날은 창조주의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은 나의 매일 생애에서 실제로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 후로 나는 아침과 시시 때때로 성령의 부으심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가까워져서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 책자를 읽고 있는 동안 한 생각이 내게 떠올랐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나의 학생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스트리아 보랄버그 엘리야 삼육 학교에서 10세에서 15세까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 곧바로 나는 어떻게 성령께서 한 젊은이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13세의 루피안과 성령

“그 경험은 내가 성령에 대한 책자를 읽기 한 일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전학 오고 며칠 안에 평화로운 오아시스는 거칠고 난투의 교실로 바뀌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때 13세였습니다. 그는 모든 아이들보다 체격이 제일 컸으며 그에 따라 힘도 강했습니다. 그 학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지만 훌륭한 결과들은 한 순간에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학생 스스로 말하게 합시다. ‘내가 현재의 학교에 전학 왔을 때 나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학교에 온 둘째 날, 나는 도발을 받았고 나의 한 동료 학생과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나보다 훨씬 약했고 사정없이 그를 때렸으며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는 과거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잘못을 깨닫고 그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 후에 나는 교장선생님과 상담을 하였고 그러면서 몇 달 동안에 한 진전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목사의 아들로서 이 일은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학생이 좀 더 많은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알았고 다시 시도하였으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시도하는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싸우지 않는 날이 거의 하루도 없을 정도였으나 점차적으로 좋아졌습니다. 한 육 개월 후 자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한 것은 기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는 아침에 그 하

루를 위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노와 싸움은 점점 그 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우리 학교에 온지 11개월이 지나갔고 우리는 더 많은 진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 욕설, 폭발 그리고 그의 주먹은 완전히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승리를 얻으려는 것은 본성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작용하였지만 결국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들은 얼마의 성과를 보았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바르지 않았으며 더구나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들을 깨닫고 그들의 분노를 통제하려고 시도하지만 다음 순간에 다시 실패하는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지혜가 무력함을 깨닫고 있을 바로 그때, 나는 위에서 말한 그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적기에 내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가지지 않을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개인적이 부흥의 단계들에 있는 기별로 내가 감화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소년에게 성령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결코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 책자에 대하여 그의 관심을 끌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책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진정으로 그 책을 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속히 그 책자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그가 말합니다. **‘2012년 11월 나의 선생님이 개인적인 부흥에 이르는 단계들 책자를 주셨습니다. 나는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까지 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루 만에 그는 벌써 여러 장들을 탐독하였으며 나에게 몇 번이나 읽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섯 내지 열 번 읽으라는 그 책의 제안을 그대로 따라 그는 그 책을 더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많은 것이 변하였습니다. **2012년 12월부터는 내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더 이상 어떤 주먹질이나 격투가 없었습니다. 그가 매일 괴롭혔던 소년들이 그의 친구가 되었으며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온전히 변화되었는데 예의 바르고 자상하기까지 하였으며 공격적인 본성은 평화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학우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매일 열매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도록 나는 그 소년이 **2013년 6월** 침례를 받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립니다. 만일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항상 내가 학생들을 잘 다루고 그들에게 그 원인을 보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내와 관심과 많은 대화로 그것을 하려고 하였지만, 이 소년에게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내게 가르치셔야 하였습니다. 하늘에 가서야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지혜가 바닥이 나고 마침내 그를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급진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내가 보도록 격려하셨습니다.” P 자매

함께 기도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성령을 등한히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그분을 가장 존중히 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생애에서 저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려 주시옵소서. 제가 매일 성령을 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매일 성령을 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골 4:6)

개인적인 속고와 토의 지침

1. 우리는 누룩의 비유에서 성령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을 배울 수 있는가?

a) 성품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b) 성품변화를 위하여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c) 우리의 성품변화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는가?

2. 예수님은 위대한 예술가시며 우리는 그분의 화폭이다. 우리는 이 사상에서 어떤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의 기도 시간

•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로 계속하여 성장을 경험하도록

2. 변화시키는 능력은 밖에서 오며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을 계속 일깨워 주시도록

3.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의 생애에서 확실히 증가하도록

4. 다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별하도록

5. 하나님께서 돕는 손으로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2장

예수께 굴복함

나는 내 의지를 잃어버리는가? 아니면 더 강해지는가?

예수께 나를 굴복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인가?

이 용기 주는 기별은 충분히 강조될 수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요 3:16; 행 16:31...) 성서적 신앙의 특징은 신뢰이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그분께 의탁한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뜻이다. 신뢰하는 굴복은 참 신앙의 분명하고 가시적인 표이다.

전적인 순복은 구원의 열쇠이며 죄와 유혹에 대한 승리,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열쇠이다. (Garrie F. Williams)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의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소망, 331) 성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실 수 없으셨다. 성령은 다른 모든 선물들이 포함된 선물이다.

“그러나 여러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 하에 주신 바 된다. 주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순복시키려 하지 않는다.”(소망, 672)

이 선물을 받음에는 조건이 따른다.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하여 말하지만, 여전히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한다. 왜 그런가? 우리는 그분께 이끌리고 지도받으려고 온전히 순복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무지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순복치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책임지려 한다. 이것이 성령이 결핍된 이유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실함이 큰 책임에 적합한 증거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그는 전적인 순복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품성의 힘을 받지 못한다.”(선지, 219, 219)

나의 순복의 여정

한 친구 목사가 갑자기 사망했을 그 때, 나는 36세의 사업가였다. 이것은 나의 마음에 의문을 일으켰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는 전혀 이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한 주 내내 이 문제로 고뇌하였다. 나는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나님과 협상하였다. 그 때마다 나는 내가 왜 목사 되기를 원치 않으며,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였다. 한 주 일 후 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반론들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인정했다. 내가 침대 곁에 더 이상 어떤 이의도 없이 무릎 꿇고 있을 때, 한 조용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생각하였다. 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몇 분 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는 내가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게 하였고 곧 나는 큰 평안을 느꼈다. 사실 주님은 일 년 반 후에야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오늘도 나는 그것에 대해 크게 감사하고 있다.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지혜는 나의 마음에 갈망하고 있던 것보다 더 완전히 다른 길을 내게 보여주었다. 이때 나의 순복은 나의 생애에서 큰 축복들이었음을 분명히 본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애에서 가능한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

왜 순복인가?

순복이란 말은 정로의 계단에 잘 설명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는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탈바꿈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라고 청하신다.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정로, 43, 44)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순복은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온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고 해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분께 순복하라고 초청하신다. 그렇다면 무엇에서 자유 하는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종살이 가운데 빠져 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2).”(소망, 466)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이다...성령은 생명과 자유를 주며 죽음과 정죄만을 낳는 죄의 법과는 대조를 이룬다.”(재림교 성경주석 롬 8:2)

예수께서 우리의 생애를 지도하시도록 허락할 때, 그분은 자아의 폭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 (시기, 분노, 말다툼, 탐욕, 중독, 분노, 교만, 자만, 낙담, 열등의식, 등등).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순복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고상한 의미의 자유가 있다.”(소망, 466) 기억하라. 모든 인간 자기 자신은 자기의 가장 큰 문제이다. 그대는 그대의 가장 큰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만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실 수 있다.

그러나 옹기장이는 자기 손 안에 있는 진흙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며 신성한 지도와 보호를 주시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해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려면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탈바꿈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정로, 43) “우리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순복시킴은 생애의 문제를 크게 단순화한다. 그것은 본성적인 마음의 정욕과 함께 수천의 투쟁을 약화시키며 잘라낸다.”(오늘 나의 생애 6)

성경은 순복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는가?

로마서 **6:13**절은 말한다. “너희 자신의 어떤 지체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의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NIV) 이 말씀에 따르면 순복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며 자신을 그분의 뜻(처분)에 맡기라는 뜻이다.

해나 스미스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어떤 물건을 양도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넘겨 주다 또는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의 소유와 관리에 내어 준다는 뜻이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순복하는 것도 그와 같다. 그 후에 주님은 우리를 지배할 능력과 소유권을 가지신다. 이것은 포기과 순복을 의미한다.”

로마서 **12:1**을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아 하나님의 많은 자비를 고려하여 너희를 재촉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호감이 가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참되고 타당한 예배

이니라.”(NIV) 이 말씀은 어떤 이유로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순복시키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많은 자비” 때문이다. 순복은 자비의 하나님 곧 사랑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응답이다.

순복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그분의 소유가 되며 구약의 제물처럼 소각되는 것이 아니라 순복의 순간부터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그분께 우리의 생애를 드린다는 뜻이다.

내가 순복하기 이전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순복하는 것은 내가 제물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 후 나는 그것이 제물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었음을 깨달았다.

요하네스 매걸은 “순복, 버림, 위임, 하나님의 뜻(처분)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것들은 심각하지만 고상하게 하는 단어들이다. 순복은 감정이나 기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뜻은 자신을 사랑하는 크신 분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해석한다.

고린도후서 **5:15**은 굴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돌아가셨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일으킴을 받으셨다.”(NIRV) 굴복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일은 다만 언제나 그분을 섬기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지 행위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골 3:17)는 것이다.

찰스 스테드는 말하기를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면 그분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나에게는 너무 크지 않다.”고 하였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하였다. 그는 영국 최고의 운동선수였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의 직업을 포기하고 수백만 파운드를 선교협회에 헌납하였으며 선교사로 중국에, 나중에는 인도에, 그리고 마침내 아프리카에 갔다. 그가 시작한 선교협회는 전 세계에서 일하는 **1800**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아직도 활동 중이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께 드렸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순복은 한편만의 일이 아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것은 모든 것 대 모든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모든 것과 나의 모든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의 모든 것보다 더 많이 또는 적게 드릴 수 없다.

- ▶ 순복은 그대를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놀라운 관계로 이끈다. (그대는 그분 안에 거할 것이다-요 14:23; 예수님은 그대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요 14:21)
- ▶ 순복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 (요 17:17-만일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알게 될 것이다... ESV)
- ▶ 순복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에 큰 능력을 얻는다. (요일 3:22-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것이다.)
- ▶ 순복은 완전한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요 15:11-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 ▶ 순복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생애의 비결이다. (요 10:10; 엡 3:19)
- ▶ 순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기초이다. (요 7:38-생수의 강; 요 14:12-더 큰 사업; 요 15:4, 5-많은 열매)
- ▶ 사탄은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 (요 5:18-옳은 경우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없이는 악한 자가 가까이 미치지 못한다.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결코 더 허락지 아니하신다.)

굴복의 다섯 수준

한 저자는 순복의 다섯 수준에 대해 말한다.

- ▶ 헌금은 순복의 가장 낮은 수준이다.
- ▶ 시간의 순복은 다음 수준이다.
- ▶ 우리의 능력과 기술, 봉사의 순복은 그 다음 수준에 있다.
- ▶ 이전에 언급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든 두려움과 희망의 순복은 그 다음 수준이다.
- ▶ 의지와 생애를 예수께 온전히 순복함을 뜻하는 우리 전 존재의 순복이 (목회지 1983년 2월호) 진정한 최고의 순복이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자신을 순복할 때,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탕자가 떠나간 것만큼 우리가 멀리가지 않은 것은 그만해도 다행한 것이다. 탕자는 자기 생애에서 바닥을 쳤을 때에야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였다. 그의 부모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기다리던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포옹하였다. 그 때에야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히 이해하였다. 이 사랑이 그로 순복하게 하였다.

비극적 사건

불란서에서 일어난 다음의 사건은 이것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불란서에서 한 부자의 아내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독이 든 작은 병을 가지고 다녔으며 결혼의 어려움들 때문에 자살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바로 어제 나는 남편에게 불평하였지만 그는 놀라고 당황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무얼 더 원하는 거야? 당신은 내 수표책을 가졌지(그녀가 그의 돈을 다 가졌다는 뜻이다.), 내 집도 가졌고 내 상에서 먹지. 번영과 계급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이 가졌는데 아직도 무엇이 불만이야?’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원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그랬더니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것만은 가질 수 없어. 당신도 알다시피 나의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지만 나의 사랑만은 요구하면 않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아무도 그런 대답에 행복할 사람은 없다. 그 여인은 남편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요하네스 매겔은 말한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내게 어떤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나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시간의 일부나 나의 재산의 일부를 원치 안으시며 나의 달란트나 재능의 일부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원하신다.

우리는 자신을 순복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을 그분께 양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돌보심, 통솔, 지침, 그리고 지시에 자신을 굴복하여야 한다. 이것은 로마서 12:1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온당한 예배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굴복 곧 “타당한 예배”에 대하여 말할 때, 굴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일이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의 문제를 숙련된 의원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더 타당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경험 많은 안내인에게 의탁하는 것보다 더 온당한 일이 무엇일까?

완전한 순복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대단한 자산이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나는 가난하고 어리석고 무능하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 현명하지 아니한가?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존재하기 원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돌보실 수 있으신 크신 분께 자신을 의탁해야 한다. 우리는 순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은 우리 편에 두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애로 들어가는 문이다.

우리의 온전한 순복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더 풍성한 생명의 시작이다.(요 10:10) 그리고 이 순복은 또한 계시록 12:11이 확인하는 것처럼 악에 대한 승리를 가져온다. “또 여러 형제가 [1]어린 양의 피와 [2]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3]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계 12:11) 이는 완전한 순복은 죄와 사탄을 정복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임을 보여준다.

실물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게 된다. 진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며, 하나님의 지배에 순복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실물, 331)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칠 때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다.”(보훈, 20-21)

우리는 여기서 다음의 것들을 본다.

- ▶ 성령께서는 예수님 안에 무제한으로 사셨다.
- ▶ 그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것처럼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순복가운데서 살기를 바라신다.
- ▶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명령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헬라이어 원문에서 이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너희는 계속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라.”(엡 5:18)
- ▶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소유하는 것이다.(요 10:10; 골 2:10을 보라)

개인적인 속고와 토의 지침

1. 성령을 받는데 어떤 거룩한 조건이 있는가?

2. 온전한 순복은 무슨 뜻이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

3. 전적인 순복이 열쇠이다? 나는 그것을 통하여 어떤 축복들만을 받을 수 있는가?

4. 순복의 다섯 수준들은 무엇인가? 한 수준만 진정한 순복이다. 그것은 어느 것인가? 그대의 순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우리의 기도 시간

•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믿음으로 구원 받는 의미를 더 잘 이해하도록

2. 그대가 이미 경험한 순복의 축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3. 성령께서 그대의 생애의 길과 결정들을 인도하시도록

예수께 나를 순복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복하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인가?

나에게 순복의 장벽은 나의 직장에 대한 이해관계였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로 부르실 것을 나는 염려하였다.

에드윈 오르는 다른 방해물을 만났다. 그는 젊은 시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해야 했다. ... 나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았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하였다.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려고 자원하였다. 나의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너의 좋아하는 죄들은 무엇이나?”고 물었다. ... 나는 그것들을 고백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내 안에서 그 음성은 계속하였다: “너의 의지는?” 이것은 내게 완전히 뜻밖의 것이었다. ... 그래서 나는 주님께 아뢰었다: 나는 당신이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거나 머물러 있으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 그 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품고 있는 우상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것은 내가 심히 사랑하는 여자였다. 주님은 만일 그분이 요구하시면 이 여자를 포기할 것인지 물으셨다. 갑자기 나는 나의 의지가 이 지점에서 방어벽을 치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런 희생을 원하지 않았다. ... 이 지점에서 성령께서는 말씀하기를 멈추셨다. 단번에 나의 마음은 놀랄 만큼 공허해졌다. 나는 곧 이것을 깨달았으며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였다. 이 때 나는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나는 내 생애의 이 부분까지도 그분께 드릴 준비가 되었다. ... 나의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과 능력으로 가득하였다. ...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과 구주를 진정으로 알고 기독교는 교리나 철학보다 더 뛰어난 것임을 느꼈다.

하나님께서서는 에드윈 오르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셨다.

에드윈 오르에게는 여자였던 반면, 나의 경우에는 직업이 방해물이었다. 어떤 경우든지 만일 그대가 아직도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면, 그대 자신과 문제를 그분의 손에 드리라. 주님은 그대를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결정들을 존중하심

만일 그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같은 길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을 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대하여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성을 존중하신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들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요청할 때만 행동하신다. 자유는 신성의 선행조건이다. 사랑은 자유 아래서만 발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 순복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리는가? 우리는 꼭두각시들이 되고 하나님은 줄을 당기시는가? 아니다!

왜 아닌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림으로 우리는 어리석음, 오도됨, 무지, 미숙한 의지를 완전, 고상함, 지혜로 대신한다. 우리는 신성한 내비게이션에 자신을 맡긴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오히려 잘못 사용한다. 포기되어야 하는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것이다.

엘렌 화잇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내가 내 자신의 길을 가며 스스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가? 아니다, 그대는 자신의 길을 가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에는 ‘나의 길’이 없을 것이다. 아무 인간의 길도 하늘나라에서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썼다.(리뷰 1892.2.23)

누구든지 하나님과 말씀의 지도받기를 거절하면, “신성한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한정된 마음을 기초로 살아갈 것이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어 있는 때, 아무도 손댈 수 없으며; 사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H. W. Smith)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선교, 258)

"우리가 성령께서 지도하시도록 허락할 때에 우리는 속박 당하거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우리는 최대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고후 3:17에는 ‘...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17)고 기록되었다.’”(David Wolowitz)

우리의 순복에 대한 다른 축복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는 미천하고 명백히 타고난 재능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공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하면 그의 능력은 순결하고 고상하게 되고 활력을 띠게 될 것이며 그의 능력은 증가될 것이다. 그가 거룩한 지혜의 교훈을 간직하게 될 때 그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위임될 것이며 그는 자신의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시 119:130).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쳐진 진리는 없다.”(행적, 283-284)

신성한 내비게이션 아래 있는 생애

잠언 3:5-6은 이것을 부정하는가? 그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은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다른 방법을 쓰든지 이성의 능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한다. 이보다 더 잘못된 이해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이성을 그분의 무한한 이성과 연결하라고 초청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작은 일이나 큰일들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십 배나 더 많은 지성을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동시에 그분의 무한한 마음과 연결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내비게이션 장치가 된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나는 나의 온 이성을 사용해야 하지만 회전, 속도제한, 교통체증과 우회로, 내 목적지에 도착하는 지름길 혹은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에 대하여 지피에스를 믿는 것이 나를 위해 좋은 지침이 된다. 나는 내가 독일에서 잘 모르는 길을 따라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내비게이션 장치를 빌렸을 때를 잘 기억한다. 지피에스는 그 일을 잘 이행 하였으며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지시들과 표준들과 조언들에 의지하면서 신성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그대의 길을 가라.

계기들을 의심함

이차대전 동안에 한 영국 비행기가 시실리를 떠나 북 아프리카로 향하였다. 모든 공항이 닫혀있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계기들에 온전히 의존해야 했다. 그들은 예정된 시간을 비행하지 않았는데도 계기들은 목적지에 도달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계속 비행하였다.

그들이 사하라를 멀리 지날 때까지 그들의 오판을 깨닫지 못하였다. 휘발유가 다 떨어졌고 사막에 불시착할 수밖에 없었다. 식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무원 모두는 목말라 죽었다. 후에 그 항공기가 발견되었을 때, 구조원들은 모든 계기들이 잘 작동하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그 항공기는 빠른 기류를 타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보통 때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그 계기들보다는 자신들의 계산을 더 신뢰하였으며 그것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하였으며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에 의존할 수 있다. 우리의 추측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더 좋다.

의지가 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함으로 우리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혜와 예의바르게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강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다니엘과 친구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라. 그들은 젊은이들이었으나 강한 사람들이었음을 증명하였고 다니엘 1장에서 그들은 음식물시험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3장에서 그들이 중년이었을 때, 풀무불 앞에서 선택하였던 놀라운 결정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그리고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있을 때, 노인이지만 취했던 태도를 생각해 보라

자기평가인가 혹은 그리스도를 통한 평가인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은 누구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더 크고 훌륭한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평가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치료봉사에서 우리는 “훌륭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적은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적게 성취한다.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살아야 할 큰 목적이 없고, 달성해야 할 높은 표준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통과한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가 처해있는

위치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지불된 그 값에 따라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치료, 498) 한 자매가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한 후 나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기평가를 발견하였습니다.”

순복의 문제들 때문에 한 충고

한 젊은이가 성령 충만을 원하였으나 분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 상담을 청하였다. 그 목사님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였습니까?”

“온전히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시키기 전에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주님께 굴복시키기 원하십니까?”라고 목사님이 대답하였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 젊은이는 “오, 주님 내 자신의 의지를 비워주소서.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복되도록 나를 이끄소서. 내 대신 나의 의지를 내려놓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목사님이 질문했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라고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요청하였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요청한 것을 내가 받았음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의지는 여기 놓여있습니다.”(R. A. Torrey) 그리고 그는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받았다.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선결조건들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고 배달해 주시기까지 즐겨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이 사람의 기도에서 두 가지 일들을 배울 수 있다. 첫째, 그 젊은이는 이미 약속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익숙해 있었다. 그의 기도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린 기도들은 드러진 바로 그 순간에 응답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들을 의지하였다. 둘째, 그 젊은이는 자신을 굴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결정들로 생애를 조정해감

자유 의지의 결정력은 우리의 생애를 지도하는 권능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이 능력의 온전한 의미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 한 예를 제시하기 원한다.

퀸 엘리사베스 여행 선의 몸체는 방향타보다 1,300배 더 무겁다. 이것은 자신보다 1,300배 더 큰 용적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생애의 방향타는 우리의 결정력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하면 그분은 모든 필요한 도움을 우리 마음대로 쓰게 하신다.

도전들

그리스도께 자신을 순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결정은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이다. 매 사람마다 특별히 젊은이는 자아가 그들의 생애를 지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물질적인 것들과 감각적인 쾌락들은 환상적 행복을 줄 수 있으나 이것들은 아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며 “우리는 항상 더 원하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며 불평은 끝이 없다”고 잘 알려진 독일 잠언이 말한다.

결국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만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더 큰 도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애에서 얼마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가족, 학교, 교회, 회사 혹은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일들과 반대되는 일들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애를 예수님께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들에 최고의 우선권을 드리는 능력과 용기를 갖게 될 것이며 지혜와 공손함으로 우리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니엘 1장 8절의 다니엘의 결심을, 9, 14, 15, 17, 20절에서 주님의 많은 도우심을 읽으라)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한 번만 순복하면 충분한가?

우리는 회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근본적인 순복을 시작한다. 이 순복은 기도와 적합한 성경적인 지도와 확신이 생긴 후에 따라오며 침례로 마무리 되고 영원토록 유효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근본적인 순복을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매일의 순복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또한 자주 봉헌, 회심 혹은 헌신라고 불리며 이 표현은 얼마의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나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부를 것이다. 매일의 헌신(혹은 굴복, 혹은 회심)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맺은 처음 언약을 따라 살기 원한다는 뜻이며 나는 오늘 그 언약을 고수하기 원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매우 귀중한 이유이다. “주님, 나는 오늘 나의 모든 존재와 가진 모든 소유와 함께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언약관계를 결혼으로 비교한다. 만일 내가 이 언약에 머무른다면 전혀 어떤 일에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의탁한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해도 이혼신청을 하지 않으신다.

모리스 벤든은 말한다. “만일 당신이 결혼을 지속하지 않으려면 결혼하는 것은 확실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결코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95 Theses, 133)

근본적인 순복의 긍정적 결과들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예수께서 “거함”에 대하여 요한복음 15장에서 아홉 번이나 말씀하신 이유이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요 15:5)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풍성한 생애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온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결실이 풍부한 생애 곧 기쁨과 능력과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에서 큰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붙잡힐 때, 우리 생애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불을 붙이라: 재림교 배경을 가진 나는 언제나 종교에 젖어 살았다. 13세에 나는 침례 받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나의 영적 생애는 단조롭고 지루하였다. 하나님께서 일 년 동안 미국에 여행할 기회를 내게 주셨다. 나는 다만 영어를 배우고 즐기려고 그곳에 갔었다. 그러나 하루저녁 성령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마엘 네가 적절한 장소에 있다고 확신하느냐?”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스웨덴에 가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모든 문이 다 닫혔다. 나는 어느 날 친한 친구가 헬무트 하우바일의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책을 내게 주었을 때, 나의 삶은 바닥을 쳤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첫날부터 그 책 읽기를 멈출 수 없었다. 그 익숙한 음성이 다시 들렸으며 저녁이면 읽을 때마다, 마침내 불이 붙었다. 내가 더 읽을수록 내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 곧 성령의 부족을 더 이해하였다. 그 책을 여러 번 독파한 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으며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언어, 나의 의견들, 그리고 나의 태도는 변화되었다. 이 모든 것은 다만 내 안에서 반사하는 성령의 사역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전문적 수준의 문이 불란서에서 열렸다. 내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으나 내게는 항상 스웨덴에 가지 못한 실망이 남아있었다. 불길은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온전히 비추지는 않았다.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이 파리 다마리에 오셨다. 나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과 오후에 거기 갔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 불길을 어떻게 다시 붙일 것인가?

일요일 아침 그 응답이 왔다. 이것은 마지막 날이었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복을 하지 않은 것이었다. 성령의 부르심은 계속되었으나 그것을 받은 후에 자아를 버리고 그분의 뜻에 맡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이 전적인 순복 없이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33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수 없었다. 나는 그 후에 이 순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중요함을 이해하였다. 다만 그 후에야 불꽃이 빛날 수 있었다.

함께 기도 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께 순복하기를 당신께서 원하심을 인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를 단순하게 하며 당신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도록 허락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매일 당신께 내 생애를 바치며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서 당신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통한 행복

“주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나니 이는 성령은 그분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영혼 속으로 영적생명을 불어넣으신다. ... 하나님의 성령으로 형성하시도록 맡기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은 결코 행복을 알 수 없다.(리뷰 1896.8.25)

청년과 성령

합회 청년부로부터

그 결과는 완전히 놀라운 것이었다. 나는 남 퀸랜드 합회의 청년부 부장이었다[교인 수 **12,200**]. 한 젊은 여성이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을 내게 주었다. 나는 많은 경험들을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우리 합회의 청년 지도자 집회에서 **300**권을 나누어 주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놀라웠다.

14세 소년이 중독을 정복함

나의 **14**세 아들은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변화되었다. 그는 중독을 정복하였으며 지금 승리의 생애를 살고 있다. 나의 아들의 생애에서 이 작은 책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고 있다.

어려움들이 해결됨 - 그녀의 막내아들의 침례는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40**일 기도시간 동안에 기도 파트너와 그를 위해 특별한 기도를 드렸다. 그 결과 그녀의 아들이 변하였고 침례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18세의 생애가 변화됨

우리 합회 회장들 중의 한 분이 **18**세 된 아들에게 이 책자를 주었다. 이것은 그의 생애를 변화시켰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아들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200**권 이상을 나누어주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사 **60:1**

개인적인 속고와 토의 지침

1. 나의 굴복을 위한 신성한 초청 이면에 있는 도전은 무엇인가?
2. 무엇이 굴복을 방해하는가? 그대에게는 그것이 무엇일 수 있는가?
3. 신성한 내비게이션 아래에서 갖는 생애의 유익들은 무엇인가?
4.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완전하고 밀접하게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5. 나의 생애에서 나를 지배하는 주요인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 시간

-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온전한 굴복을 방해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도록
 2. 의지를 적합하게 사용하여 우리 생애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는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3. 더 많은 통찰을 주시어 내 자신의 의지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4. 유혹들과 죄에 대한 승리를 주시도록

예수께서 그대 안에 거하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의 생애에 어떤 효력이 있는가?

궁극적인 성취: 하나님의 충만으로 물든 존재

그리스도 안에 거함

“신앙은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을 의미한다.”(리뷰 1892.5.24)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성령은 영생의 시작이다.”(소망 388) 다음에 주목하라.

- ▶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 ▶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 ▶ 이것은 영생의 시작이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내가 성령으로 채워질 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지식은 내게 매우 귀중하다. 이것은 놀라운 성경의 진리이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밀접한 교제를 가지기 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15:4)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놀라운 초청이며 동시에 명령이다. 이것은 꾸준한 그리스도인 생애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1-17에서 거하라는 말을 열한 번 강조하셨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 그분은 이 개념과 빛나고 놀라운 약속들을 연결하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1) 엘렌 화잇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예수님의 호소를 명료하게 하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생애를 의미한다.”(소망, 676) 다른 곳에서 그녀는 말한다. “매 순간 신성의 대리자와의 연결은 우리의 진전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얼마를 소유할 수 있으나 기도와 믿음으로 계속하여 더 많은 성령을 구하여야 한다.”(능력을 받으리라 306)

그리고 “그분[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사실 것이며 성화시키시는 성령의 감동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분 자신의 생명적 수혈을 영혼에게 주입하실 것이다.”(상동 305)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한 약속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에 이끌림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다 쓸지 모른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벧후 1:3)을 지라도 그들은 영적빈곤가운데 산다.

텍사스의 유명한 유전은 예일즈의 저수지라고 불린다. 미국 경제위기 동안, 예일즈라 이름한 사람이 양 목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목양으로 빚을 갚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수 없었다. 그런데 유류 회사 사람들이 와서 그의 목장에서 유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 회사는 시추를 해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예일즈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1,200자 밑에서 착암기는 거대한 유전을 발견하였다. 그 모든 것이 예일즈 씨의 소유였다. 그가 그 땅을 살 때, 그 땅에 있는 어떤 석유나 다른 천연 자원에 대한 권리도 양도받았다. 그는 천만 장자로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는 석유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Dr. William R.**

Bright)

그대는 베드로후서 1:3,4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벧후 1:3) 그 나머지 성경절을 내 말로 하게 하라. 예수님과 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이 관계 안에 있는 동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간구하는 것이다.

이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고 그분의 모든 자원들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남녀들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 맺는 증인들이 되기 위하여 지혜와 사랑과 힘이 포함된 모든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신 영적 부를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영적 가난뱅이로 살고 있다! 자기 땅에서 석유가 발견되기 전 예일즈 씨처럼 그들은 무한한 소유에 대하여 모르고 살고 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우리는 유혹의 폭풍을 견딜 수 없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 집을 짓는 데 달려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시험해 보지 않은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비가 내리고 폭풍이 휘몰아치고 홍수가 올 때에 저희 집은 이 집이 제일

의 모퉁잇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소망, 599-600)

성령을 위하여 기도함

예수께서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열 번이나 우리에게 촉구하신 특별한 성경말씀이 있다. 나는 그분 안에 거하라는 초청 외에 예수께서 그런 부드러우나 긴박함을 가지고 어떤 일에 우리의 주목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말씀을 모른다.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11:9-13에 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서술을 반복할 뿐 아니라 이 장 뒤에 오는 말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원한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온전하여졌으니”(골 2:10 흠정역)

엘렌 화잇은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칠 때는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에베소서 5장 18절)고 친히 명령하셨다. 이것은 명령이면서도 이 명령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 거하게’(골로새서 1장 19절) 되고, ‘그 안에서 충만하여’(골로새서 2장 10절)지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었다.”(보훈, 20-21)고 말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에 대해 배운다.

- ▶ 성령께서는 한없이 많은 분량으로 예수님 안에 사셨다.
- ▶ 그분은 성령께서 그분 안에서 사신 만큼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순복의 생애를 살기 바라신다.
- ▶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고 친히 명령하셨다.
- ▶ 우리가 여기서 더 풍성한 생명과 장래의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 ▶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크고 가치 있는 열매들을 가지고 계신다.

믿음으로 기도함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히 11:6)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갈 3:14)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엡 3:17)려고 믿음으로 기도한다.

성령을 위한 기도를 늘 드린 후 실제로 그분을 받았음을 내가 알아야 한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약속들을 간구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 제 5장을 읽어보라)

엘렌 화잇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청구와 수령을 기다리신다.”(실물 121)고까지 말하며 데이빗 우크워즈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당신은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 경우에는 성령의 특별한 선물이다. 그런 생각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 그것은 불손한 것 같으며 그런 일을 생각하는 것조차 불경하기까지 하다. 그런데도 이 말은 그 여사의 저서들의 여러 곳에서 주의 천사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그 여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매우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이 선물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선물은 우리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며 지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는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였음을 알면 우리는 신뢰와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David Wolkwitz)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요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나타낸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려면”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들이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고 그분께 바로 최고도의 요구를 할 때에 그분은 매우 기뻐하신다.”(소망 668)

우리가 매일 온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께 드린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의 훌륭한 중보기도

이 주제를 위하여 우리는 에베소서 **3:14-21**을 살펴보기 원하며 거기서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위한 바울의 훌륭한 중보기도를 발견한다. 그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그는 그들을 위한 성령의 내적 능력을 요청한다.
2.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다.
3. 그리하여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며, 이 거룩한 사랑은 그대들 안에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진다.
4. 또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5. 우리는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보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는 우리 성품의 긍정적 변화 곧 성령의 열매의 성장을 경험한다.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

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4-19)

나는 어떻게 내적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신앙생애의 기초는 에베소서 **3:16**에 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는 매일 내적인 힘이 필요하다. 온전한 능력의 생애는 기쁨을 준다. 우리의 자비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힘을 갖기 원하신다. 이 내적 사람을 위한 힘은 성령께서 공급하신다.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 **60**쪽은 왜 우리는 매일 예수께 자신을 드리며 매일 성령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약속들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요청하자마자 즉시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나는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한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17절에 따르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오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충분히 깨닫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 때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느끼거나 측량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만일 그대가 이것을 믿으면 지금 그분께 말씀드리고 다시 그분께 말하라: “주 예수님, 당신께서 제 마음에 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은 “주님 당신께서 제 안에 사심으로 매우 기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를 그대의 생애의 일부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그대를 이끄신다.”라고 말했다.(**Andrew Murray**)

엘렌 화잇은 덧붙인다. “성령의 감화력은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다.”(**SDABC 6, 1112**) 그리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계획가운데서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며 그리스도의 임재가 되며 사람의 성품을 형성하는 대리자가 되셔야 한다.” (능력을 받으라 47) 그리고 또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형성된 사람이다.”(상동 43)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한다. 신뢰는 믿음의 기초이다. 그것은 예수께 우리의 전 생애를 의탁하는 것이며 곧 우리 생애의 첫 굴복이며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굴복하는 것이다.

믿음과 느낌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엡 3:16-17)라고 말한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려면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며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8)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믿음의 핵심은 신뢰이다.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한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요 17:17) 엘렌 화잇은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들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분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을 보증으로 삼고 그것들을 청구한다.” (영문시조, 1884.5.22)

하나님을 신뢰함은 그분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내가 나의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때는 어떠한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나 자신 안에 어떤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탄 교회에서 구원하신 로저 모나우는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그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와 선지자의 말씀 대신에 자신들의 느낌에 귀 기울이라고 장려한다. 확실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악한 영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생애에서 지배력도 획득할 수 있었다.”(초자연의 세계로 43) 우리는 감정이나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을 뜻하며 믿음은 성경을 우리의 생애에 단순한 구성요소나 장식품이 아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드높인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이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무장되어 있다. 로마서 8:4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한다.(롬 8:4 KJV)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그분의 약속들이 우리의 생애에서 이루어지는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그분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할 것이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

리 마음의 가장 깊은 필요를 만족시킬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팔에 안긴 어린 아이처럼 평안과 안전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감정이 변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하면 우리의 피상적인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확신도 줄 수 없음을 깨닫는다. 우리의 감정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변치 않는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만 온다.

우리는 감정을 열심히 추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증가할 것이다. 이것들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더 깊은 정서의 선물들이다. 희락은 거기서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10) 믿음의 생애에서 기쁨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 증가 될 것이다.

미래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자와 감정을 따르는 제자 사이를 구별하는 일은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대 유혹자는 놀라운 일들 곧 예수님처럼 나타날 것이며 이 계시 배후에는 감정과 신비주의를 통한 매력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놀라운 “신앙 경험”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감정에 온전히 의존하는데 이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정적 경험들을 통하여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21-23에서 분명히 이것을 반대하여 말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1-23) 우리는 다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신뢰하고 순종하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다른 길은 없다.(교회증언 5권 21장 “예수님을 바라봄”을 읽어보라)

하나님께 지속적이며 온전한 순복이

왜 그리도 중요한가?

로마서 12:1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참되고 합당한 예배니라”(NIV) 그리고 잠언 23:26은 이렇게 초청한다.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잠 23:26).

순복의 의미는 제 2 장 “예수님께 순복함”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것은 “정로의 계단” 5 장 “헌신”에도 잘 설명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순복은 항상 큰 축복이다. 만일 예수께 우리 생애를 지도하시도록 허락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자아(모든 시기, 분노, 투쟁, 말다툼 등등)의 폭정에서 자유하게하실 수 있다. 엘렌 화잇은 말한다. “성령을 나누어주심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주심이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불어넣어 주신다.”(소망, 805) “우리는 다수를 통하여 승리할 것이 아니요 영혼을 온전히 예수께 순복함으로 승리할 것이다.”(SD 279)

계시된 비밀을 이해함

에베소서 3:18의 첫 부분으로 가보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되도록”(KJV)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바로 그 귀한 말씀이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면 이로서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기 때문에 변화되는 비밀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성품을 우리 안에 조성하신다는 뜻이다.

어떤 한 형제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매우 단순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깨닫기 매우 어렵다.”(데니스 스미스)

바울은 골로세서 1:25,26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함 그대로 너희에게 제시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를 따라 교회의 종이 된 것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음으로 감춰있던 것인데 이제는 주님의 백성에게 나타났고”(NIV) 27절은 말한다. “하나님이 그(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 세대동안 감추어져 있던 신비가 이제 계시되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 말씀은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현 생애를 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과 동시에 영생도 보증되어 있다는 뜻이다.

엘렌 화잇은 영광의 소망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 비밀(골 1:27)을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이 비밀에 대한 지식은 모든 다른 것의 열쇠로 마련되었다. 그것은 우주의 보물들, 무한한 발달의 가능성들을 영혼에게 열어준다(교육 172) 성경은 자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비슷한 말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주님 안에”,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와 같은 표

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 표현들은 신약에서 **170**번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이 표현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다. 그의 간증을 생각해 보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 로마서 **15:18**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성취하신 그런 일들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KJV)고 기록한다.

잘 알려진 다른 말씀들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 2:14 KJV)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이다. 여기서 초점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는 성품의 변화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엡 2:10)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살전 4:16)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요일 2:5) “하나님은 ... 자기 아들을 ... 보내어 ...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3-4 KJV) 만일 우리가 성구 사전을 찾아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는 성구들이 들어있는 귀중한 말씀들을 많이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리스도 밖에”

스탠리 존스는 “바울의 ... 관용구 ‘그리스도 안에’에 초점을 맞추며 그의 서신들에서 그것을 **97**번 사용한다. ... 그는 이 두 말들이 온 인류를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두 그룹으로 나누며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사망가운데’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하였다.(그리스도 안에, 9)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NKJV)

개인적인 속고와 토의 지침

1. 엘렌 화이트에 따르면 무엇이 참 종교인가?
2.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같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3. 성령을 받는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 혹은 신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4.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그분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5.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인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조성된다. 이것은 그대의 생애를 위하여 어떤 암시들을 주는가?

우리의 기도 시간

-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예수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하는 참 신앙을 이해하며 소유하도록
 2.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순복함에 확고부동함을 유지하도록
 3. 우리의 생애에서 성령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4. 우리의 감정들에 대한 올바른 우선순위와 그것들을 취급하는 방법을 알도록
 5.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더 뚜렷한 기쁨을 갖도록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효력들

우리는 어떻게 죄의 능력에서 구원을 얻는가?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다시 “육신”이 되는가?

엘렌 화잇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시키는 성령가운데서 하나가 될 때에 유대 백성의 죄였던 모든 바리새인 적 사상과 스스로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를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알게 하’(골 1:27 KJV)실 것이다’(1기별, 385-386)

요셉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대들은 이 고결한 청년들의 모본을 따를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대들은 결단코 그대들의 짓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짓발을 날리며 사람들과 천사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라. 그리고 이 조 언과 반대되는 행동을 암시하는 그릇된 신중이나 그릇된 사려의 지배를 받지 말라. 말을 가려서 사용함으로, 그리고 일관된 행동 노선을 따름으로, 그리고 예모 있는 행동과 경건함으로 그대들의 신앙을 표명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심령의 성전의 보좌에 좌정하시도록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두어,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라.”(청년, 28)

가정생활

각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연합을 가져옴-“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남편과 아내는 피차에 존경하고 사랑과 신뢰를 계발할 것이다. 무엇이나 가정의 화평과 연합을 훼손시킬 것은 단호히 억제되어야 하며 친절과 사랑은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 자비, 관대,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 같은 정신이 자신에게 반영되어 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곳에는 부적절한 말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 안에 형성되면 그 가정에는 연합과 사랑이 있을 것이다. 아내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남편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합의가 되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그 저택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가정, 120)

“그대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는 가족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명했다. 그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가르쳤다. 어머니들이여, 이것이 그대들이 꾸준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이다. 최신 유행을 배우기 위하여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소유물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현재 성품을 형성시키고 있다. 젊은 남녀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의 미래의 운명을 현재 결정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모셔 들여라. 주께서 그대들을 모든 유혹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절제, 290-291)

정복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최악적 습관의 사슬을 끊었다. 야비한 자들이 경건하게 되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한 자들이 순결하게 되었다.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의 이적이다. 말씀에 의하여 기록된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성경이 선언한 바와 같이 이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뿐이다.”(행적, 476)

예수님의 편지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각자를 통하여 한 편지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면 그는 그대들을 한 편지로 그대가 사는 가정과 동리와 거리로 보내신다. 그대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 호소하신다. 설혹 저들이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또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또는 저들이 하나님의 업적 가운데서 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대들이 예수의 참된 대표자일 것만 같으면 저희가 그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만큼 이해하게 되어 그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지도 모른다.”(정로, 115)

하나님의 사랑의 개인적인 측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인격적인 측면을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

는 일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며 그것이 진실이 되게 해주신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해외여행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기 원하였다. 그 아버지는 “뱃머리 너머를 내다보고 이제는 배 뒤쪽을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다. 또 이제는 왼쪽과 오른 쪽을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이다. 이제 하늘 위를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다. 이제 물 위를 보아라. 대양은 우리 아래에서 깊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이다.” 라고 말했다. 그 소년은 잠시 이 설명을 되새겨 보고 빛나는 얼굴로 소리쳤다. “아빠, 이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을 아세요?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예요.”

매일 자신의 생애를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있는 것이다. 나는 우리 위대한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매일 아침 기도드린다.

궁극적인 성취: 풍성한 생명

에베소서 **3:19**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며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8-19)고 말한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이다. 요한복음 **10:10**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갖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다. 골로새서 **2:9,10**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온전하여졌으니”(KJV) 그대는 하나님의 충만을 소유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필요한 단계를 취하라!

우리의 요청 이상의 응답들

우리는 주님께서 에베소서 **3:20**의 약속을 따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엡 3:20)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강성한 대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요청 그 이상 곧 우리의 이해에 넘치며 그분의 영광과 능력의 부요를 따라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이 약속을 주장하면서 요청할 수 있다. 더하여 우리는 예레미야 **33:3**에 따라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크고 전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예수님의 삶은

내 안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고전 1:30).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잠 8:11).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전 2:13).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도 우리는 매우 지성적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매우 어리석을 수 있다.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보자. 그들은 굉장히 지성적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결정을 따라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는 내가 지성적이며 지혜로운지를 결정한다. “지혜는 한 지혜로운 사람을 한 도성에서 열 주권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NIV)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이것은 인류의 타락으로 잃었던 의가 그분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로마서 **8:3,4**은 귀중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 자기 아들을 ...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은 영을 좇아 행하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의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음에 주목하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방법이다.

스미스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롭다하며 성화시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의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죄와 형벌에서 해방시키시며 회개하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의(온전한 순종)로 옷 입혀 주신다는 뜻이다. **“(40일 기도 2권, 18)**

그리하여 가장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취하시고 당신의 의를 내게 주신다. 이 교환을 통하여 우리는 결코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앞에 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시 103:12).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생애를 살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성화는 무슨 의미가?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행적, 564-565). 자원하는 순종의 생애를 위하여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요성은 4장 “예수님을 통한 순종”에서 더 자세히 토의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으며 그것은 모든 죄에 대한 순종, 죄의 속박에서의 해방, 하나님의 영광가운데서 영생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으로 그 값을 치루셨다.

아프리카에서 노예 매매가 이루어지는 동안, 포로들은 무쇠 목걸이로 채워지고 다른 포로들과 쇠 사슬로 연결되었다. 경우에 따라 이 불쌍한 사람 중의 하나가 도중에서 몸값이 치러진다. 몸값이 치러지는 즉시 그 포로는 목쇠에서 풀려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심적 경향은 한 계단 한 계단 조성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이 마음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는 빌립보서 **2:5**의 말씀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할 때, 그분의 생각하시며 행동하시는 방법을 우리 안에서 펼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멀리한다.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선한 일들을 성취하심

에베소서 **2:10**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 니라”(엡 2:10)고 한다. 만일 우리가 선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들을 그대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 임무를 성취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특별한 길을 계획하셨다. 이 사업 안에서 그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함으로 세 가지 일들이 함께 활동한다.

1.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할 때에 나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계속 치유된다.
2.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다.
3. 주님은 내게 큰 축복들을 주신다.

우리는 믿음가운데서 선행을 통하여 자라날 것이다. 우리의 실제적이며 지적이며 영적인 기량들은 발전될 것이며 우리의 기쁨과 힘은 증가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의문이 있다. 나는 나의 인간적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는가?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주심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눅 19:10)고 오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대 안에 사시면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

하기를 바라신다.”(정로 119)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우리는 5장 “예수님을 통한 매력적인 믿음”에서 이 주제로 돌아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기도하”(유 1:20)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 14:13). 우리는 분명한 명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한다.”(실물 147)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정로, 100-101).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네 가지 측면이 있다.

1. 예수님의 영으로 기도함은 성령으로 채워져 있음을 의미한다.
2. 그분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약속들은 주장하는 것이다.
3. 하나님과의 훌륭한 상호신뢰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다.
4. 예를 들면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사업을 행하면 모든 일에서 순종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선행조건들은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가운데서 기도한다는 의미이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 안에 무한한 확신을 가지셨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약속들의 유익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고후 1:20).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앞서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벧후 1:3-4).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을 주목하라. 그분은 이미 우리의 삶의 필요와 경건한 삶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이 선물들을 받는다. 이것들은 약속들을 주장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것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신성의 참여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죄의 능력부터의 구원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아무 정죄함이 없는가? 첫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책을 자신이 취하셨기 때문이며 둘째,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묶은 죄의 속박이 깨어지며;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된다. 이것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만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갈라디아 **5:16**은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하여 중요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다음의 말씀 **17,18**절은 성령과 함께하는 생애에 관한 것이다. **19-21**절은 육신의 일들을 나열하며 이것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 때에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일서 **5:18**이 확인하는 것처럼 죄와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 계속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느니라. 악한 자가 그들을 해롭게 하지 못하느니라”(NIRV).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셨으므로 악이 차지할 공간이 없다. 그러나 이 점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라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짓지 않도록 용기를 주심

요한일서 **3:6-9**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다음의 엄숙한 말씀을 읽는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계속하여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는 아무도 죄 짓는 것을 습관으로 삼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계속하여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음이라”(ESV).

고대 헬라이어 전문가는 죄를 짓는데 대하여 이 강조하는 말씀은 습관적인 죄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본래의 헬라이어 사본에 따르면 그것은 “그는 계속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그러나 그는 때때로 죄에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바른 일을 하

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우리의 죄 된 습관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생애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에 대한 승리를 얻도록 도와준다.

죄를 지음으로

다시 “육신”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죄 없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 아님을 마음에 두자. 우리는 연약함과 조급함 혹은 미련함을 통하여 죄에 빠질 수 있다. 만일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함과 용서를 받아들임과 다시 성령으로 채움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다시 육신이 되지 않는다. 죄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소동과 동요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불신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영적으로 호흡하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다시 육신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죄 된 본성은 남아있다. 어느 사도도 자신이 죄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우리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신다.

실제적인 결과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생애로 인도하기 바라시지만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증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 엘렌 화잇은 “죄는 제 삼위이신 분의 전능하신 대리 사역을 통해서만 저항되고 정복될 수 있다. 그분은 약화된 힘이 아니라 신성한 능력의 충만으로 오실 것이다.”(능력을 받으리라 13)라고 말한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는 깨어지고 우리가 짓는 죄의 빈도는 결정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좋은 건강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건강을 돌보도록 하신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 1:2).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3-24).

한 유전학자에 의하면 그리스도와의 신뢰하는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유전인자는 잘 활동하고 강한 호르몬을 생산한다고 강조한다.

믿음과 건강의 관계는 세상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기별이다. 이 기별은 매일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며, 매일 성령을 구하여 받고, 개인적으로 건강개혁의 권고에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전할 수 있다.

그로샬트와 매트섹 교수의 지도하에 삼십년 이상 **3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건강에 좋고 가장 강력한 요인은 사랑하고 자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임이 밝혀졌다. 이 관계가 존재하는 때에야 건강 식단, 운동, 그리고 복지 같은 다른 건강요인들은 몇 배로 더 유익하게 된다.(뉴스타트 폴러스, 하이드 박사, **333,334**) 이것은 다음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 준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 4:8). **40일 기도 3권:**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위한 건강 원칙들에서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은 건강에 대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생활양식을 바꾸는데 동기를 부여하고 역사하는지 공유한다. 그러므로 정서적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스미스 목사님은 “이 **40일** 기도력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보여 줄 것이다.”라고 말한다.”(**40일 기도 3권, Day 1.**)

한 사업가는 “나는 매일 성령의 채움을 통하여 건강기별을 받았습니다. 이 전에는 어떤 건강 세미나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육식을 좋아했고 내가 어떤 것을 먹는지에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한 커피와 불랙티를 마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별로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나는 맥주도 마셨습니다. **2009**년 이후 나는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기와 커피와 불랙티 그리고 맥주를 끊으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채식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과 함께하는 생애가 절제와 생활양식을 포함하여 모든 일에서 승리를 위한 기초였음을 깨닫기에 이르렀습니다.”(사업가에서 온 이 메일 중에서)

한 자매는 “온전한 순복이 나의 생애를 변화시켰음”이라는 제목으로 편지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다만 건강에 대한 것만 나누고 있음): “나는 매일 나의 마음에 성령께서 사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합니다. ... 나는 더 이상 계속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었습니다. 나는 매일의 일과들을 아주 많이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더 이상 내 위를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커피를 끊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닷새 동안 머리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심한 금단 증상들입니다. 이 때 나는 그 결과들이 나에게 어떤 것이 될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 뿐이었습니다. 현재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나는 육식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는 육식 끊기를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며 그것을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에서 나타난 위대한 변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 선교를 책임지고 있을 때, 그는 동료 선교사 맥칼티에게서 편지를 한 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이 편지를 사용하셨다. 그것은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의 비결에 대한 진리를 나타내었다. 이날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테일러의 길은 화평과 쉼과 승리의 길이었다. 그의 선교사 동료들은 이 놀라운 변화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신 일에 대한 그의 간증을 나누려고 어떻게 테일러가 새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서 새 길을 가고 있는지 언급하였다.

테일러는 영국에 있는 누이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그가 발견한 이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과 갖게 된 이 놀라운 경험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는 “나의 임무는 지금처럼 광범위하고 할 일이 태산 같고 어려운 때는 결코 없었지만 이제 압박과 긴장은 온전히 사라졌다. 지난달은 아마도 나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달이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일의 얼마를 내게 말해주기 원한다. 나는 진정으로 어떤 새롭거나 이상하거나 놀라운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요약하면 ‘내가 볼 수 없었으나 지금은 볼 수 있다!’ 나의 짐이 가장 클 때, 하나님께서는 맥칼티에게서 온 편지 중의 한 문장을 사용해서 나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내가 전에 결코 알지 못하였던 예수님과 하나 됨에 대한 진리를 내게 나타내셨다.”고 썼다.

계속하여 테일러는 그의 편지에서 그분은 포도나무요 신자들은 가지들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의 이해를 어떻게 주님께서 열어 주셨는지 묘사한다. 그는 “오, 이 진리를 보는 기쁨이여!” 라고 썼다. 그리고 그는 계속한다. “만일 누군가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달콤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가장 달콤한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전적인 일체화[합의와 순복]된 쉼이다. 내가 이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어떤 것에 대하여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까닭은 그분께서 당신의 뜻을 이행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이 나의 뜻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분께서 나보다 이것을 더 많이 고려하신다. 가장 쉬운 상황에서도 그분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며 가장 큰 어려움에서도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스미스 목사님은 테일러의 경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서 모든 상황에 큰 평화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발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같은 승리와 그 같은 평강을 제공하신다. 그대는 그런 승리와 평강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승리와 평강 곧 전에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기쁨을 모두가 확실히 발견하는 것이 나의 기도이다.”(데니스 스미스, 성령의 침례와 그리스도 안에 거함, 10,11)

나는 이 호소에 함께하며, 그들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풍성히 열매 맺는 생애 곧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특징지어진 생애를 바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요 15:5).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 14:10). 그대와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업을 완성하시기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예수께서는 바라신다.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 생애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안전이다.”(치료, 511)

함께 기도 합시다: “주 예수님 나는 당신께서 나의 생애에 들어오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저의 생애를 당신께 드리는 때에 당신은 성령으로 내게 채우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이 저를 위한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게 당신과의 교제와 성령을 통하여 기쁘고 가시적인 성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구와 수용을 기다리고 있다. 이 약속된 축복을 믿음으로 주장하면 그에 잇따라 모든 다른 축복들을 가져온다. 그것은 은혜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주어진다.”(소망 672)

부부와 성령

결혼한 부부로서 더 큰 친밀감

내 남편과 나는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을 읽었을 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 번째 읽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애의 경험들을 말씀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생애의 복잡한 상황들을 위한 해결책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읽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런 밀접함과 연합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한 팀이 된다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일하고 기도하며 교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은 즐겁습니다! 이 책 한 박스를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훌륭한 경험들

40일 기도력은 우리에게 훌륭한 경험들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 중에 첫째로 개인적인 부흥이 왔습니다. 아침에 함께하는 연구와 숙고들의 교환을 통하여 우리는 부부로서 영적으로 함께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는 매일 일상의 상황들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통과하려고 받은 많은 힘이 얼마나 큰지 놀랍습니다.

나는 결혼생활에서 노력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을 읽은 후에 나의 눈이 영적으로 열렸음을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는 더 이상 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재림교도로서 나는 경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으나 내 안 깊은 곳에서 나는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결혼생활 중에 교인 남편과의 좋은 관계를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교회에 참석하고자 서로 격려합니다.

이 책이 또 한 부부를 도와줌

나는 재림교 서점에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이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사무원이 내게 강권하면서 “이 책은 또한 부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내 조카가 남편과 헤어졌으나 이 책이 그들을 재회시켜주었고 함께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책을 구입했고 귀한 보물로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인 속고와 토의 지침

1.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결과들은 무엇인가?
2. 예수님의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3. 죄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4.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가?
5. 믿음과 건강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의 기도 시간

-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매일 생애가운데서 명확히 보이는 결과들을 만 드시도록
 2. 예수님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이해와 능력을 위하여
 3. 죄스러운 습관들을 정복하는 해방의 경험을 위하여
 4. 영적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냉정하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통한 순종

어떻게 하면 나는 즐겨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왜 기쁜 일인가?

순종은 왜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한 순종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력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성경과 기차 시간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 협의회 동안에 신학생들이 노년의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질문하였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모든 성경말씀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내일 여러분이 집에 가기 원한다면 기차시간표를 보고 출발시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기차가 오전 7:30에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의문 없이 다음 날 기차역에 가서 기차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차시간표를 사용하는 것처럼, 나는 지난 50년 동안 성경과 거기 있는 계명들과 약속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수많은 죽음의 위협들 가운데서, 거기 있는 지시와 교훈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고 하였을 때, 나는 이 지시들을 따랐으며 어떤 위협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그 같이 한다면 유사한 체험을 할 것입니다.”(칼 하임 박사의 보고 중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온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순종은 특별한 이름을 가졌는데 곧 믿음의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목사들을 부르시는가?

로마서 1:5에서 나는 복음 사역자로서 매우 중요한 지시를 발견했다. “그[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려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나니”(ESV)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회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내가 이 일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모본이 되는 것을 요구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믿음의 순종은 어떻게 오는가?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들은 또 다른 사상을 더해준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순종을 성취하기 원하시는 방법이다.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음의 순종을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롬 16:25-27 KJV)

이 말씀은 비밀이 무엇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분명한 목적 곧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는 비밀이 공개되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그 설명을 골로새서 **1:27**에서 발견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애를 산다. 또 다른 말씀은 이 새로운 시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9).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 5:3). 예수께서는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1:30) 그것들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시 119:72)며, "내 입에 꿀보다 더하"(시 119:103)고,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시 119:162)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시 119:47)한다. 그것은 내게 "큰 평안"을 준다.(시 **119:165**) 믿음의 순종은 즐거운 일이다.

생애의 견고한 기초가 필요함

독일 시인 클라우디어스는 “사람은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튼튼한 닻이 필요하다.”고 썼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부족으로 견고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정서적 긴장에 시달린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말씀에 기초한 견고한 토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이 그리스도인 시인은 우리의 생애에서 견고한 기초와 의지할만한 표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디서 튼튼한 기초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기초를 오래 전에 마련해 놓으셨다. “이 닻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닻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1). 예수님은 우리 생애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 생애를 위한 최선의 표준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표준들을 만들기에 누가 합당한가? 무엇이 옳은지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성경은 시편 99:4에서 명백한 답을 제공한다. “당신께서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루터의 독일어 번역). 그리고 시편 111:7,8은 부언한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굳게 서 있으며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KJV).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하셨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표준이나 법칙을 세울 자격이 없다. 만물의 위대한 소유주이신 창조주만이 이 권리를 가지셨다. 다른 아무도 명확한 조망을 갖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만 전지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다.

표준을 정하는 분의 성품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나타낸다. 그분은 사랑과 진리, 기쁨과 공의의 원천이시다. 그분의 훌륭한 성품과 무한한 능력과 전지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다른 세계의 거민들과 인류와 동물들을 위한 최적의 법칙을 세울 수 있으시다. 사랑하시는 창조주께서 생명을 위한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드셨다.

그분은 천연법칙들로 이 일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지구의 항구성 즉 해와 달로부터의 거리, 지축의 방위 등등. 또한 윤리와 도덕에서 인간의 행복을 위한 법칙들도 세우셨다.(렘 7:23 참조).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한 훌륭한 규칙들을 세우셨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상한 현상 곧 하나님의 율법들을 순종하는데 관한 큰 혼란을 이야기하는 동안 이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원칙들에 순종하는데 관한 혼동

바울은 고후 4:3,4에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3-4)고 말한다.

사탄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변장한다. 어두워진 마음은 두 가지 일들을 암시한다. 첫째, 어떤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변장되었거나 감추어져 있다. 둘째, 마음이 “미혹”되어 잘못된 점을 옳은 것으로 본다는 뜻일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상들이 우리를 교묘하게 혼란시키는지 깨닫지 못한다. 이 변장과 눈가림은 올바른 견해를 방해한다.

말씀은 이 일이 불신자에게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육적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남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그분께 완전히 순복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그들을 눈멀게 할 수 있다.

나는 사탄이 영적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어둡게 하는 일을 시도한다고 확신한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24에서 말씀하신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24). 루터의 독일어 성경에서 요한일서 5:18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탄은 세상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그의 속임수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언하는 교회들을 발효시키고 있다.”(실물, 414) 예수께서는 계시록 3:17, 라오디게아인에게 보내는 그분의 기별에서 이 현상을 명확히 묘사하신다.

마태복은 24장과 25장에서 마지막 사건들을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는 네 번이나 마지막 때의 한 가지 특별한 표징을 언급하신다. 현혹시키는 속임은 이미 매우 강력하지만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누가 소경이 되었는지 알기 힘들다. 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성령께서 만이 진리와 속임수를 분별하는 눈을 열어 주실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한 가지 큰 속임의 영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순종과 연관이 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지 명확한 개념이 없다. 이것은 믿음의 순종 곧 특별한 종류의 순종이다.

믿음의 순종은 무엇인가?

우리는 바울이 만든 이 말을 정의하는데 몇 가지 가능성에 직면한다. 그것은 틀림없이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따르는 순종이다.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진정한 신뢰의 관계

에 들어는 것이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다. 예수님을 향한 순복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에 의한 순종이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정확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얻는다는 의미의 바리새인적 율법 순종을 대항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순종이 참 제자도를 위해 필요하지만 이 순종은 바리새인들의 순종과는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즐겨 받음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사람의 생애에서 순종의 행위를 낳는다.

이 순종은 신뢰를 기초로 하며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스미스목사는 “어떤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산다면, 순종은 좋은 생각 없이도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나온다.”(40일 기도 1권, 21,22)고 말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순종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비밀을 공개하심

로마서 16:25,27을 요약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믿음의 순종을 세우려고 한 가지 비밀을 공개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믿음의 순종을 달성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은 믿음과 신뢰와 사랑에 기초한 자발적인 순종이다. 우리는 그분의 율법이 우리의 최상의 유익이라는 이 신뢰와 우리의 이해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며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

“사람을 순종으로부터 해방하는 대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참여자로 만드는 것은 믿음 그리고 믿음뿐이다.”(정로, 60,61)

이 비밀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바울은 콜로새서 1:25-27에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목사가 된 것은 ...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KJV)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비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KJV))

감추어졌다가 지금 공개된 이 비밀은 예수님 자신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것이 우리를 위한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영광의 소망은 하나님께

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충만한 생명과 영광 가운데 성취되고 보증될 수 있는 영생을 의미한다.

로마서 **16:25,26**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통하여 믿음의 순종이 세워지거나 성취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며 또한 원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음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에베소서 **3:16,17,19**에서 다음과 같이 읽는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다.

1.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속사람을 위한 풍성한 능력을 받는다.
2.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3.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의 성품을 조성하신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다.(갈 **5:22**)
4. 이것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인도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은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엘렌 화잇은 “영혼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는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한다.(실물, **314**)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사시며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일어난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승리하는 생애를 살기 바라신다.

갈라디아 **4:14**에서 귀한 사상이 더 발견된다. 바울은 여기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한다.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바울은 매우 열망한다. 그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말했다. 사람이 온전히 장성하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그것은 최소한 **16년**이나 **17년** 걸린다. 나는 바

울이 여기서 성장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생애를 그리스도께 매일 드리며 믿음으로 성령을 매일 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이 관계에는 성장과정이 있는 것이다.

애매모호함들

불행하게도 순종에 관하여 불분명한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우리는 예수께서 믿음의 생애에 관한 어떤 필수적인 점들을 언급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한다. “나를 떠나서는[내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이것은 또한 순종의 중요한 영역에도 적용된다.

둘째, 순종에 관한 기초적인 원칙들을 설명하는 엘렌 화잇의 적절한 기술을 살펴보자. “율법을 지키려는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순종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의 의로운 행위들은 자신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가 자원하여 즐겨 하도록 역사하셔야 한다.”(리뷰, 1890.7.1.)

세 가지 중요한 점들:

1. 내 자신의 선행으로 하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보수로 받기를 원한다는 의미이다.(선행으로 말미암는 의처럼)
2.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순종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애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3. 순종은 우리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선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원하여 하는 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성취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놀라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행로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려고 한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는 한 모두는 그들의 순종의 목록이 얼마나 길든지 짧든지 요점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로마서 3:28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한다. “타락한 사람이 자신의 최선의 선행을 어떤 공덕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더 열렬하며 더 자주 반복

하거나 더 굳게 정립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요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믿음과 행함, 18)

순종은 절대 필요함

예수께서는 순종을 강조하셨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였다. 여기서 그분은 순종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손으로 쓰시고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한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이 요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그분의 모든 선물들은 순종의 조건으로 약속되었다.”(실물, 145)

실물교훈에서 우리는 또 읽는다. “하나님의 성품은 율법에 표현되었으며 그대들이 하나님과 일치되기 위하여 그 율법의 원칙들이 그대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줄이지 않으셨다. 오해될 수 없는 언어로 그분은 그것에 대한 순종을 영생의 조건으로 제시하셨다.”(상동, 39)

사도 요한은 순종이 하나님을 아는지 여부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 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요일 2:3-4).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요일 3:24)

또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 5:3)

성경은 순종이 남은 자 곧 마지막 교회의 표라고 말하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계 12:17),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고 말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성공적인 부흥 설교가 중의 하나인 찰스 피니는 “부흥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순종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장년 성경연구 지침서 **2011년 8월 31일** 부분에서 “순종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은 구속받은 자의 생애에서 구원의 결과들과 축복들을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썼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을 통하여서만 순종할 수 있다. 그분께서만 이것을 성취하실 수 있다.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순종의 모델이셨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8,9).

사도행전 **5:32**은 이것에 동의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구속의 조건이라는 뜻인가? 절대 아니다! 그 대신 바울은 구속에 이르는 길은 믿음뿐이며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다시 강조한다. 그러면 우리가 즐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살도록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3-4). 하나님께서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7)고 말씀하셨다.

계속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감

“그 영을 좇아 행하는” 것은 계속하여 성령 안에서 산다는 의미이다. 이 말씀은 필요한 순종이 우리,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사시는 사람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우리를 통하여서 보다는 우리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갈라디아 **2:20**에서 바울은 어떤 말을 하였는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하였다. 에스겔 **36:27**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로 만드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성령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남을 명확히 본다. 그것은 진심으로 하는 순종이다. 이 사قم 없이 우리는 부족한 외적 순종만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없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방정(方正)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예모 있는 생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는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누추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정로, 58) 의무감에서나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기 원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

서 지키는 자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성향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의 발현이다.”(실물, 97-98)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분께 온전한 순복으로 시작된다. 그분은 이것을 우리의 영적재생으로 응답하신다.(요 3:1-21을 보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새로운 생애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매일 새롭게 함으로 유지된다. 그것은 매일의 헌신과 함께 성령으로 채워짐 곧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매일 요청하는 것이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교”(엡 3:16-17)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계시는지 자신을 시험하라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시험하라고 초청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후 13:5)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영적상태를 바로 알기를 바라신다. 언제 우리는 영적상태가 실격되거나 부적합하게 되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적합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생애는 부적합하게 된다.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마음이라고 부른다.

자동차가 언제 “부적합하게” 되는가? 그것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이다. 만일 휘발유가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밀거나 휘발유를 사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차에 휘발유를 채울 것이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순종은 휘발유 없는 차를 밀려고 하는 것과 유사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분명해지기 시작하는가? 예수님은 대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일 5:12).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분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충분한 삶이 없으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도 없을 것이다.

그대는 어떻게 순종이 이루어지는지 더 잘 이해하는가? 우리는 매일의 순복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순종을 이루시도록 성령을 요구함으로 예수께 자원하는 심령을 나타낸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0**을 읽을 때, 이것을 잘 이해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고전 1:30).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며 우리 안에서 성취하실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화가 되셨다고 말하는 때에 성화가 일어났으므로 우리가 순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분명하다.

우리는 언제 구원 받았는가?

왜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면 나의 구원의 결과로서 순종이 오는 것이 분명하다. 언제는 구원을 위한 나의 선행조건이 아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했을 때, 그는 그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알려 주었다. 그러나 로마서 **8:24**에서 그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롬 8:24)라고 썼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닌지 선택할 자유를 가졌다.

우리의 구원 후에 우리의 주된 관심은 우리 생애의 끝까지 혹은 그분의 재림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엡 **2:8**) 그 후 이 믿음에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골 2:6). 그 요점은 순복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남아 있는 것이다.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셨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선행조건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그분께서 하시도록 하는 우리의 찬성(승인)이다.”(40일 기도 **2권, 35**)

왜 우리의 온전한 순복이 필요한가?

순복은 왜 좋은가? 온전한 순복은 우리 자아의 폭정으로부터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 우리의 자아가 문제이다. 어느 잠언은 모든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라고 말한다. 우리 자아는 불쾌하게 되고 상처받고 당황하며 권위를 주장하려 하고 질투하며 여러 다른 문제들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는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탈바꿈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정로, 43)

“그는 당신의 창조력의 극치(極致)인 사람이 가능한 최고 한도까지 발달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놓이고 못 놓이게 되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렸다.”(정로, 44)

자아의 통치아래 있는 생애는 죄에 노예 된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생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자유의 삶이다. 토기장이는 다만 자기 손에 있는 진흙만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의 순복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순복한 후에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를 때, 구원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예수님 재림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들어갈 것이다.

성경적 순종

성경적 순종은 행위로 말미암는 공로나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순종은 하나님을 의지함,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순복, 나의 구원, 나의 관계의 필연적 결과이다. 성령으로 채워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적 순종은 행위로 표현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일 뿐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온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충동을 실행에 옮기는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소망, 668)

자신의 노력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더 큰 진리가 있었다. 그들은 우상숭배와 부패 가운데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부조, 371)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없다. 순종의 비결은 성령의 내재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그분께

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신다면, 순종은 큰 기쁨을 준다. 이 율법은 자유의 율법 곧 십계명이다.(약 2:12)

개인적인 속고와 토의 지침

1. 충성된 순종은 무엇이며 어떻게 분별하는가?
2. 나는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구원은 돌이킬 수 없는가?
3.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는 일들에 관한 성경적 신앙의 자연적 결과는 무엇인가?
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시는가? 구원과 관련하여 행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의 기도 시간

-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구원과 순종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하여
 2.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을 위하여
 3. 구원에 대한 성경적 확신을 위하여
 4. 행동으로 표현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위하여
 5.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한 순종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력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낳은 순종

우리는 예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예식을 알고 있다. 그분은 순수한 물을 우리가 포도주라고 부르기 원하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로 변환시키셨으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 사실을 예수께 알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가 기대한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요 2:5)고 말한 것으로 보아 예수께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실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종들에게 고취시켰다.

마침내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대로 하였고 그 후에 그분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요 2:7,8)고 말씀하실 때도 순종하였다.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자진하여 순종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자원하는 결정은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한 단계들에서 알 수 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물을 맛있는 음료수로 변환시키셨고 그것은 그분의 첫 이적이었다.

개인적인 단계들은 무엇인가?

- ▶ 마리아의 지시로 종들은 예수께 대한 신뢰를 쌓았다.
- ▶ 종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므로 신뢰와 자원함을 표현하였다.
- ▶ 마리아와 종들은 실제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기여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홀로 이 이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이 이적은 준비 없이 일어났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와 선택을 그분의 뜻에 맡기고 단계적으로 순종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하여, 예수님-예수님 홀로 이 기적을 행하시며 그분만 우리 안에서 순종의 이적을 행하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순종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다.(고전 1:30)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

리의 결정과 순종에 이르는 준비단계들은 예수께서 우리 생애가운데서 행하시는 순종의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이다.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협업

엘렌 화잇은 다니엘의 생애에서 이 순종에 이르는 단계들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동무들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 소원을 두고”(빌 2:13) 역사하고 계시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 거룩한 협동의 원칙의 사역이 나타나 있으며 이것이 없이는 참된 성공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치 물로써 주신 것은 아니다....

... 당신의 성령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분은 모든 참된 목적과 모든 고상한 결심을 굳게 하실 것이다. 순종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방해에 직면할 것이다. 강하고 교묘한 감화가 그들을 세상에 붙들어 떨어지 모르나 주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패배 시키려고 작용하는 모든 행위를 무용하게 하실 수 있으며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은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난국을 극복할 것이다.”(선지, 486,487) “주께서는 신성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함께 협력하도록 고안하셨다.”(능력을 받으라, 10) 막 핀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큰 기쁨과 성취감을 준다.”고 썼다.

우리의 배역은 무엇이며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배역을 맡으셨는가?

1. 우리는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발전시키려고 결심한다. 그분께서 자원하는 분위기를 우리 안에 조성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신다.
2.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성과 뜻을 온전히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 후에야 만 지도하실 수 있고 이끄실 것이다.
3.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결심을 보이며 순종의 단계들에서 결심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이 순종의 단계들은 그 규모에 있어서 크게 다를 수 있다.
4. 하나님께서는 홀로 중대한 몫을 맡아하시며 또한 우리의 신뢰와 준비의 발전을 지원하신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순종에 대한 결정을 하며 계단들을 오르려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 적은 일들이 나 큰 일들이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는 순종은 즐거운 일이 된다.(막 편리)

의문들

누가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이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한 결과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하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쓴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소망, 309)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수동적으로 인정하기만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에 반응하여 행동하기를 바라신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자진하여 결정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행한다는 뜻이다. “그는 갑옷을 입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택함을 입었다. 그는 ... 그의 수중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방법들을 사용하도록 택함을 입었다. ... 그는 계속하여 믿음을 갖도록 택함을 입었다.”(목사, 454)

“죄를 정복하는 위대한 사업에서 사람이 할 일은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는 사상을 제시하지 않도록 하라.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협력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역자 되어야 한다. ... 그리스도와의 협력은 승리를 의미한다. ...

사람의 편에서 할 일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는 인상을 결코 마음에 남겨 두지 말고 오히려 그가 정복하는 일에서 성공하도록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가르치라.”(새 생애, 38,39)

우리가 결정과 준비하는 우리의 역할을 인정할 때, 이 준비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운데서 이루어졌을지라도 이것은 신인 협력임이 분명해 진다.

내가 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그의 동의 없이는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주장은 옳은 것이다. 사람은 순종의 계단들을 통하여 이것을 승낙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의 모든 국면들을 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본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쟁에서 신인협력의 좋은 예를 발견한다.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힘써 싸웠지만 그들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

순종의 다른 정도의 단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표현만 할 수 있었다.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라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외에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그는 동의하든지 아니하든지 할 수 있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은 마리아의 생애를 온통 바꾸어 놓았으며 인간의 눈에 그것은 큰 위험이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는 온전한 순복의 삶을 살았다.

열 문둥병자들.

예수님께 온 문둥병자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눅 17:14)

이 사람들은 즉시 가는 일로 그들의 신뢰와 결심을 나타냈다. 예수께서는 그들 대신 가지 않으셨다. 그들이 갔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는가? 결코 아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신뢰를 두는 순종에 의하여 그들을 치유하셨다. 그들은 자신의 회복에 아무런 역할도 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그들의 순종을 통한 신뢰의 표현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이적의 문을 열었다. 예수님 홀로 그 이적을 행하셨다.

나아만의 치유

나아만이 어떻게 문둥병에서 치유되었지 기억하는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지시들은 다음과 같았다.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왕하 5:10). 나아만은 이 명령에 분을 냈으나 그의 종들이 설득한 후에 그것을 행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는 일을 대신하지 않으셨다. 나아만 자신이 몸을 요단 물에 일곱 번 잠근 후에야 문둥병이 치료되었다. 일곱 번의 침수가 그를 치유했는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결과로 그가 한 순종의 단계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이루는 징검다리들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 있는 작은 믿음과 순종의 단계들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인도했음을 본다. 나아만 역시 이 이적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준비의 단계들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루디와 마리 애나 헐쉬만

세계 II차 대전 후 재림교회에서 막 침례 받은 젊은 부부가 독일 배드 아이블링 근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마리 애나는 첫 아이로 만삭이 되어 있었으며 건강 때문에 교사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였다.

직장을 찾기 위해 루디는 뮌히에 여러 주를 매일 같이 갔지만 끝내 구하지 못하였다. 6 마르크만 남은 때까지 그들의 저축은 말라갔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해 두었던 돈 봉투가 있었다. 그것은 십일조로 구별해 놓았던 것이었다.

마리아 애나는 “루디 우리의 돈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의 돈을 사용할 유혹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그것을 집에 두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 내일 뮌히에 갈 때, 그 돈을 가지고 합회 재무에게 드리고 와.”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루디는 그 돈을 재무에게 주었다. 그녀는 루디에게 그들이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고 그는 형편을 설명하였다.

재무는 “잠시만 기다려 봐요”라고 말하며 어디 엔가 전화했다. 그 후에 그녀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 직장을 구한 것 같아요. 이 주소로 가서 바우어 씨를 만나세요.”라고 말했다.

30분 후에 루디는 그 직장에 채용되었다. 헐쉬만 가족은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십일조를 드렸으며 순종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 그들의 삶에 관여하셨다.

괘 섬의 여행사

괘 섬의 큰 여행사를 소유한 부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부인이 먼저 침례를 받았고 남편은 2004년 1월에 침례를 받았다. 그들은 그들의 회사에서 안식일 준수를 위해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였다. 그들은 안식일에 계약된 호텔과 모든 서비스를 취소하였다. 남편은 그들의 여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행 대행사들, 호텔들, 판매대행자들에게 이 조치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고객들 중의 많은 이들은 그 부부의 경쟁사들인 다른 여행사에게 일을 맡기겠다고 응답하였다. 그의 직원들은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하였다. 이 결정은 그 회사에 사형선고와 같이 보였다. 그러나 그 형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자. “나는 우리가 문을 닫은 첫 안식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는 예약 신청을 위하여 응답기를 켜놓았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은 첫 토요일에 일기가 갑자기 변했으며 온 종일 비가 퍼부었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응답기에 일요일을 위한 예약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 6개월 동안 일기는 이런 모양으로 곧 금요일에는 아름다운 일기, 안식일에는 퍼붓는 비, 일요일에는 아름다운 일기가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독일에서 출판된 선교사 편지, 40호 2014년 3,4월 호)

이 기적에서 부부의 뫇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들의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뒤를 따른 기적들은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자: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를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할 수 있는 것들이다.”(실물, 332-333)

순종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께서서는 순종이 우리를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길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예레미야 **7:23**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렘 7:23)고 말한다. 모든 의사는 치료약을 복용하는 때만 치료할 수 있다고 동의할 것이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치료되기를 원한다면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면 가장 훌륭한 의사라도 치유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순종은 신뢰와 순복의 필연의 결과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은 우리 자신의 선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기에 순종은 우리의 최선의 유익이 된다.

광야에서 구리 뱀 사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민 **21:4-9**을 보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장대에 달린 구리 뱀을 바라보았을 때, 치유되었다. 그들이 머리를 돌린 것이 치유의 원인인가? 아니다, 물론 아니다. 그들은 그 구리 뱀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치유되었다. 하나님 홀로 그들을 치유하셨다. 순종은 그들 자신의 유익이 되었다.

그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히 11:7)다. 방주의 건설은 하나님께 대한 노아의 믿음의 산물이었으며 그의 믿음이 참됨을 나타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와 시간을 이 건축물에 투자하고 후회하지 않았다. 그의 순종은 그 자신에게 유익이 아니었던가? 그는 앞일을 미리 알지 못하였으나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은, 이 배의 건축은 하나님의 지도와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의견들

불행하게도 오늘 날 하나님의 명령들은 매우 불균형한 관점으로 평가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해야 하는 강제적인 명령들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들은 우리를 위한 첫째요 최초의 약

속들이다. 하나님의 율법들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그분과 연결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축복의 율법들이다. 순종은 단순히 심적 경향이며 그것을 통하여 매일 우리의 관심사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순종을 본다면,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순종,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순종을 생산하실 때, 그 순종은 선물이다. 만일 우리가 순종을 선물로 본다면, 이것은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피하는데 도움을 준다.

(1) “값싼 은혜”의 잘못된 신념.

(2) 율법주의의 유혹.

“값싼 은혜”란 보통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으면 아무 순종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가 어차피 그것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기 원하고 또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하나님의 왕국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으려는 의도는 함정일 뿐 아니라 만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무거운 짐이 된다. 이것은 율법주의의 유혹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결심과 소망을 연결하여 우리 안에서 순종을 만들어 내신다면 그 순종이 가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에 공로의 특성이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순종은 결과로서,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구원의 결실로서 필요하지만 선행조건은 아니다.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어떤 선행조건 없이 예수께 갈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있는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회심하고 구원 받은 강도가 계속하여 도둑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자신과 근심들을 더 위대한 손에 맡김

우리 자신과 근심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생애의 모든 면에 적용된다. 우리는 아무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내가 더욱 더 위대하고 강한 손 곧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데도 어떤 것을 남겨둘 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며,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며,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길을 가는 것이 논리적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

우리는 지금 이 충고를 매우 잘 이해할 수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 우리는 그 기계의 더 큰 조망에 의존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이 꺼져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도 필요하다. 운전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일이다. 도로 위에서 우리는 더 큰 조망을 가진 “지도자”와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할지, 교통마비 때문에 돌아가야 할지, 너무 빨리 가고 있는지 등등을 알려 준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신성한 “내비게이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통과해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훌륭한 하늘 지도자와 이성을 주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은 올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약속하며 자신의 명예를 걸고 보증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3). 여기서 또한 순종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천연법칙이든지 영적법칙이든지 신성한 율법을 따름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보다 좋은 결과들이 있다. 만일 불신자들까지라도 이 신성한 율법을 지킨다면 긍정적인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천연적 축복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영적법칙들을 따를 때, 더 많은 일 곧 이적들까지도 일어난다. 나는 이것을 초자연적 축복이라고 부른다.

신뢰와 순종은 서로를 보완한다. 야고보서 **2:22**에서 우리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읽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순종이 자라고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길러준다.

나는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적절한 인용문을 반복한다.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면 순종은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나온다.”**40일 기도, 21,22)**

순종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시편의 훌륭한 말씀들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특히 시편 **19, 119**장) 그 말씀들은 구원, 구속 그리고 율법이 함께 속하였음을 보여준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할 것이며 즐겨 순종할 것이다. 나는 육적 그리스도인은 시편 **119**장의 말씀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추정하건대, 그들은 그 말씀들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른 한편, 영적 그리스도인은 시편기자가 기록한 것을 더 강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명하셨다.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보내시는 빛 가운데 행하면서 그분이 요구하신 모든 것을 즐겨 순종할 때, 우리의 경험은 자라나고 성숙해져서 마침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장성한 남녀들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된다.”(청년, 15-16).

하나님께서서는 얼마만큼의 순종을 기대하시는가?

예수께서는 내 안에서 순종을 얼마나 성취하기 원하시는가? 조금, 많이, 혹은 온전히?

출애굽기 4:24-26에는 모세의 생애에서 분명한 모본이 나타내 주고 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사명을 받았다. “미디안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는 여호와 의 불쾌히 여기심에 대한 놀랍고 무서운 경고를 받았다. 그를 당장 죽일 것처럼 한 천사가 그에게 위협하는 몸짓으로 나타났다. 아무 설명은 없었으나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하였다.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그는 막내아들에게 할례 의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아이는 곧 할례를 받았다. “... 그제야 천사가 모세로 하여금 여행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모세는 바로 앞에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생명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하여서만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생활을 사는 동안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었다.”(부조, 255-256)

이 사건에서 배워야하는 교훈은 부조와 선지자에서 더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안전이 없을 것이다. 그 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훈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부조, 256)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함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복지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단 하나의 죄로 인하여 에덴을 떠나야 했음을 알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종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라고 생각한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순종을 성취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유익임을 마음에 간직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을 기대하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이 지상에서 사람으로서 이루신 바로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원하신다. 인자로서 그분의 태도는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8)였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요 15:10)켰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만일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행복과 생명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풍성히 가져다준다면 순종의 부족은 분명히 축복들의 상실을 뜻한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있고 또 영원히 있게 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즐겨 순종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랑과 조화를 보장해 준다.

마지막 생각들

예레미아 **7:23**은 이 전체주제를 이렇게 요약한다.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동안 주어졌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렘 7:23).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약속을 주셨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분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복지를 위한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고 덧붙이신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위한 기도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

사도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생애에서 믿음의 순종에 대한 훌륭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정로의 계단에는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마침내 그는 자기 주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의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미는 그리스도의 조성(造成)하시는 능력에 맡긴바 되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의 성질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령과 그분의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심령을 안정시키고 사상과 소원을 하나님과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정로, 73).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영혼이 그분의 기쁨, 평화, 계속적으로 보호하는 능력을 갖도록 결정하셨다.”(하늘의 있을 곳, 53) 모든 신자들이 믿음의 순종의 큰 기쁨을 경험하기까지 인내하는 것이 나의 소망과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기 바란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7).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시 103:17-18).

우리는 순종의 큰 보복에 대해 더 듣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탈옥수가 감옥으로 돌아가게 하심. 나는 재림교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19**세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2016**년 살인죄로 **43**년 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5**년째 감옥에 있습니다. 나는 **2017**년에 탈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안식일 후 한 여인이 “개인적인 부흥의 계단들”이라는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월요일에 나는 재림교 서점에서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저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나는 그 주일에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성령 없이 살아온 지난 생애동안 가졌던 나의 내적 공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 나는 온 생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2018**년 나는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탈옥은 용서받았고 모든 것보다 극적인 사실은 지금 나의 재판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법원에 상소하였고 이 책을 다 읽은 후 나는 깊은 회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희망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 봉사의 인도자입니다. 여기 바라와기 감옥의 수감자들 가운데 그 책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주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와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랑과 능력가운데서 가능한 최선의 생애를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지침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하여 당신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당신의 방법들에 온전한 신뢰를 주시고 순복과 순종하는 온 마음과 함께 모든 일에서 당신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적인 속고와 토의 지침

1. 우리의 행동들을 포함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역에서 우리의 몫은 무엇인 가?
2. 진리에 대한 단순한 동의와 신뢰 사이에서 무엇이 다른가?
3. 우리 편의 동의가 언제 중요한가?
4. 순종은 왜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우리의 기도 시간

-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거룩한 사역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더 많이 의식하도록
 2. 우리 생애에서 참 믿음 아니면 단순한 동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3. 신실한 순종과 그에 따른 축복을 위하여
 4.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원칙들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에 이르는 신앙

신자간의 하나 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 가족과 세상에 매력이 되게 하는가?

우리 안에서 생긴 어떤 변화가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가?

부흥은 어떻게 사명이 생기게 하는가?

40일 기도 나의 파트너가 한번은 “나는 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도록 마음을 이끄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웨일스의 소녀 매리 존스는 성경을 읽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 먼 친족에게 갔다. 매리는 이 일을 10세에서 15세까지 하였다. 그 소녀는 온 마음으로 그 성경을 사랑하였고 성경을 구입하려고 별도의 일도 많이 하였다. 그는 6년 동안 1전이라도 저축하였다.

그 소녀가 거의 16세였을 때, 성경을 사기 위해 한 목사님을 찾아 맨발로 25마일을 걸어갔다. 그분은 아직 두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벌써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로 약속하였다고 말하였다. 매리는 통곡하였으며 성경을 사려고 어떻게 6년이나 저축하였는지 말씀드렸다. 목사님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성경 한권을 그 아이에게 주었다. 그 아이는 심히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이 그 소녀에게 매력적이었는가? 신앙이 이 소녀에게 매력적이었는가?

이 일은 1800년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 경험은 그 목사님을 심히 감동시켜 세계적인 성서공회 곧 영국 성서공회와 외국 성서공회를 설립하였다. 나중에 다른 많은 성서공회들이 설립되었다.

그렇게 성경을 극진히 사랑하여 간절히 구하려고 자기 생애를 바친 한 소녀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마음을 끄는 신앙은 영향력을 가진다.

“마음을 끌다”는 의미

사전들은 마음을 끌다를 호소함, 사랑받음, 매혹시킴, 갖고 싶은 등으로 정의를 내린다. 그런 믿음을 누가 원하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호소력 있고 매력적인 믿음을 갖기 원할 것으로 믿는다.

나는 어떻게 그런 신앙을 열망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모양일까?

- ▶ 그것은 생애를 위하여 견고하고 의지할만한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한다.
- ▶ 그것은 오류나 거짓이 아닌 진리에 기초되어야 한다.

▶ 그것은 최선의 유익을 제공할 것임으로 인간의 이론과 섞이지 않은 사랑 많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되어야 한다.

▶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확신과 큰 기쁨을 가져와야 한다.

▶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애를 위하여 뚜렷한 유익들을 불러와야 한다.

▶ 그것은 어려운 환경들 곧 병들었을 때, 곤란한 때,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나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그것은 영원한 희망을 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매력적인 신앙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나의 기도 파트너가 한번은 “나는 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도록 마음을 이끄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 마음을 끄는 신앙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도 그 신앙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소유하기 원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마음을 이끄는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마음을 당기는 신앙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는 마음에 다음의 성경 말씀을 간직해야 한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6-19)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며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의 본성을 드러내실 것임을 말한다. 이것은 자아에 노예 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됨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거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신다. 그분은 최고의 삶의 질을 위한 자원이다.

예수께서는 매력적인 신앙을

어떻게 묘사하시는가?

예수께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충만을 말씀하셨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만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충만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화평과 진정한 기쁨이다. 이 상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신뢰와 믿음에 의하여 되기 때문에 외적 환경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9)고 편지하였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필요 되나니 이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골 2:9-10)기 때문이다.

야곱의 우물가의 여인은 이것을 경험하였다. 예수께서는 매일의 삶의 실례를 가지고 이 갈망의 충족을 설명하셨다. 그 당시 물은 사람이 필요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물질들 중의 하나였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요 4:14)로 나아간다. 우리는 이 샘물에서 마실 수 있으며 갈증이 채워질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갈망한다. 전도서 3:11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전 3:11)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갈증이지만 그들은 모른다. 파스칼에 따르면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공백이 있다. 그 결과 사람은 더 많이 더 많이 라는 지속적인 채움의 갈증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믿고 신뢰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요 7:38)였으며 결과는 그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흘러넘치는 생명, 매력적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매력적인 신앙은 이 세상에서는 부요하고 충만한 삶이며 영원한 세상에서는 더 크고 상상할 수 없는 생애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임을 보여줌

요한복음 17:20-23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보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1-23).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모든 시대마다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 즉 그분은 그대와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교제 가운데 즐거워하며 서로 도와주도록 우리의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연합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그분은 제자들의 하나 됨에 기인하여 세상이 이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믿고 알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세상이 우리 중에서 무엇을 눈치 채는가?

1. 세상은 신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다. 세상은 제자들 사이의 사랑스러운 품행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결과임을 깨닫는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2.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사임을 믿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심을 깨닫는다.

3.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들의 사랑스러운 품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도 사랑하심을 인정한다. (“아버지께서 ...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나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은 **(1)**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2)**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인정하며 **(3)** 하나님께서 자신들도 사랑하심을 인정할 것이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품행으로 예수께서는 세상의 인정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영적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매력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다. 부흥은 사명을 발생시킨다.

사람들은 왜 제자들의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가?

모든 사람은 서로 매우 다르다. 다른 달란트와 능력들, 그리고 남녀들과 청년과 노인들이 우리 중에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교육적 혹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다른 점들은 세상에서 사람

들 사이에 자주 긴장을 조성한다. 그들은 또한 경쟁과 투쟁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과 조화와 도움이 존재하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놀라고 이끌리는 이유이다.

내가 독일 뮌헨에서 목회자로 있을 때, 가까운 작은 타운에서 전에 사업하던 친구를 방문하였다. 그는 한 집에 여러 개신교인 가족이 모여 사는 거리에서 살았다. 내가 개신교인임을 아는 그는 내게 말했다. “이 15 내지 20명의 사람들이 한 집에서 조화롭게 그리고 어떤 다툼도 없이 살 수 있음에 온 동리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매력적인 신앙이다.

지금은 독일에 있는 작은 교회 교인인 월터 슈룬트는 이 같은 또 하나의 실례를 말해 주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우리는 루마니아를 방문하려 하였는데 마침 한 홍수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목적지까지 75 마일이 남아있었지만 더 갈 수 없었습니다. 우연찮게 한 개신교인이 우리를 비로(Biró) 목사님의 가정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가족은 그 집에서 하루 밤 묵도록 초대하였고 우리는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이 가족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고 개신교인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가족이 가진 가풍 곧 조화로운 가족생활, 깨어지지 않는 평화, 친절한 분위기, 가족 예배였습니다. 나는 내게 깊은 감동을 준 질 높은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도 이것을 소유하기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매력적인 신앙이다.

나는 독일 르겐스베르크에 있는 동안 어떤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을 방문하였는데 그들의 가정들은 언제나 적대적이고 다투었다. 그대가 다른 사람들 곧 마음들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방문하는 특권을 가졌을 때는 매우 유쾌하다.

매력적인 신앙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오는가?

매력적인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곧 신구약 성경에 기초되어 있다.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요 7:38)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성경은 신약이 없었던 그 때에 구약을 말한다. 요한복음 17:14에서 그분이 자기 아버지께 대하여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요 17:14)라고 말씀하셨을 때,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17에서 그분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라고 지적하신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상상한 신 혹은 신들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오직 한 신앙 곧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신앙이 성경의 신앙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확립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의 신앙은 가장 매력적인 신앙이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오직 하나 진실로 매력적인 신앙이다. 성경의 교

리들을 바로 이해하며 성령으로 그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열 처녀의 비유에 의하면 교회의 반 정도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믿음과 화평을 경험하며 영적 갈증이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는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신다. 그 사랑은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매력적이 되게 한다.

제자들 중에 있는 하나 됨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결혼과 가족, 교회와 봉사에서 하나 됨에 관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2)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영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에, 둘째는 창조의 영광에, 셋째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랑의 본성에 사용되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한 출애굽기 **33:18,19**을 살펴보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주님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라고 대답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이며 사랑과 자비로 특징지어 있다. 자비는 행동으로 도와주는 사랑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한다. 하나 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존경과 신뢰와 짝을 이루는 것이다.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통하여 인류를 사랑해야 하는 것, 곧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누기를 바라시는 그런 사랑이다. 성령의 부으심 후에 초대 교회에 대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빌기를 다하매 ...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행 4:31-33).

하나 됨은 균일화가 아님

하나 됨은 마음(정신)과 목적과 본질의 통일이다. 동시에 각 개인의 개성은 남아 있다. 그것은 우리의 개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특성들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애에 성화시키는 감화를 끼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행적, 549-550) 다른 곳에서도 그는 “변화된 품성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 한다.”(선지, 233)고 기록한다.

하나 됨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제자들의 하나 됨은 성령을 통하여 그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요 17:21: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 17:23: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골 1:27: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갈 2:20: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 됨은 그리스도께서 그대와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하다. 우리의 존재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엘렌 화잇은 “우리는 가장 진지하게 한 마음과 한 목적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성령의 침례만 우리를 참으로 이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큰 사업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지게 하시는 성령을 받도록 자아부정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자 ...”고 기록한다.(능력을 받으리라, 318)

다른 곳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연합케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유대 백성의 죄, 곧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과 스스로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의 지체가 되는 각 신자에게 새겨질 것이며 당신의 백성은 새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부대가 될 것이며 새 포도즙은 가죽부대를 찢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를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골 1:27)실 것이다.”라고 쓴다.(1기별, 385-386)

그들은 통일성을 발견함

우리는 다른 공동체에서 이 두 번째 경험을 하였다. 나의 전임자는 “당신은 지금 지뢰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곧 긴장이 고조되

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다툼과 분과와 깊은 상처들이 있었으며 용서의 정신은 없었다. 절제되지 않은 감정적 폭발과 개인적 공격들은 온 공동체를 검은 구름으로 덮고 있었다. 교인들이 용서치 않는 거미줄에 엉키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가정그룹으로 나누고 개인적인 부흥에 이르는 계단들 소책자를 가지고 연구하도록 하였다. 교인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이 소책자를 매우 고맙게 여겼다.

여기서도 개인적으로 10일 기도와 금식을 시작하였다.(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기 위한 10일의 기도와 헌신) 마침내 한 교회로서 함께 기도와 금식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 집회들이 새벽 4시에 다시 열렸다. 처음에는 참석자가 많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모였으며 훌륭하고 평화롭고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이 감지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하여 아주 어려운 마지막 단계를 위하여 기적적으로 교회를 준비시키셨다. 드디어 장벽이 무너지고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논쟁하던 사람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였다. 그들은 서로 포옹하였다. 눈물을 흘렸다. 슬픈 모습들은 다시 행복을 찾았고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왔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보고 체험하기에 훌륭한 경험이다. 하나님께서만이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을 지도하실 수 있다. 지뢰밭에도 희망이 있다!

개인적인 속고와 토의 지침

1. “매력”이란 무슨 뜻인가? 매력적인 신앙은 어떤 것인가?
2.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이 매력적인 신앙에 대하여 읽을 수 있는가?
3. 이런 유형의 신앙은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4.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있는 연합을 볼 때 알 수 있는 세 가지는?

우리의 기도 시간

-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매력적인 신앙을 소유하도록
 2. 매일의 생애에서 이 매력적인 신앙이 없는 곳을 보는 통찰력을 위하여
 3. 이 마음을 끄는 신앙을 위하여 더 많은 공간을 만드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위하여
 4. 그대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눈을 뜨게 하도록
 5.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과 계속적으로 더 많이 보이도록

우리 안에서 생긴 어떤 변화가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가?

부흥은 어떻게 사명이 생기게 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내 안에 사시는가?

이에 대한 설명이 에베소서 **3:16,17**에 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엡 3:16-17). 우리가 전에 관찰한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신다. 우리의 존재가 “속은 날로 새롭”(고후 4:16)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하여 누가복음 **11:13**와 같은 약속을 즐겨 주장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예수께 헌신을 새롭게 하며 믿음으로 간구함이 중요하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와 개인들이 하나 됨은 제자들을 서로 밀접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일치를 위한 기초이다.

“이것[하나 됨, 연합]은 선물이며, 신자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요 17:22,23]. ... 그러므로 하나 됨은 각자에게서 시작된다.”(장년교과해설, 2012.11.21)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주 결과들이 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증거 하는 능력이다.

성령의 열매와 선물들은 하나 됨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후 이 두 영역[성령의 열매와 선물들]은 셋째 영역 곧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증언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다. 우리의 개인적인 변화는 우리의 증언과 제자들로서의 일치를 위한 선행조건이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눅 19:10)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과 동역자가 된다.

이 세 영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 5:22-23). 이 모든 특성들은 매일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결혼과 가정에서, 제자 모임에서, 교회와 봉사에서 하나 됨을 위한 중요한 선행조건이다.

바울은 우리 안에서 전개된 하나님의 본성인 한 가지 열매의 전체적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3:17**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엡 3:17)라고 읽는다. 그가 말하는 열매는 사랑이다. 헬라어에서 그것을 아가페라고 부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추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이다.

이바 본 티엘-윈크렐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 ▶ 희락은 기뻐하는 사랑이다.
- ▶ 화평은 휴식하는 사랑이다.
- ▶ 오래 참음은 붙들어 주는 사랑이다.
- ▶ 자비는 빛나는 사랑이다.
- ▶ 양선은 도와주는 사랑이다.
- ▶ 충성은 믿어주는 사랑이다.
- ▶ 온유는 방어하지 않는 사랑이다.
- ▶ 절제는 순결한 사랑이다.

성령께서 주신 이런 열매의 특성들은 사랑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에 대하여 복수가 아니라 단수 형태로 말하였다. 엘렌 화잇은 이 특성들에 대하여 “성품의 변화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한다.”고 말한다.(선지, 233)

2. 성령의 은사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중요한 효력(결과)은 성령의 선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였다. 몸은 여러 다른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조직이 잘 작용하는 것이 생명에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달란트로 서로에게 봉사하며 그리하여 가족과 그룹과 교회의 총체적 성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나타낸다. 각자는 다른 사업에 임명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다른 재능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약에 있는 은사들의 목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초대교회에 더 많은 은사들이 있었으며 현대에는 추가된 은사들이 있다.

말씀의 은사들	이적의 은사들	봉사의 은사들
지혜의 말씀 고전 12:8	(이적의) 믿음 고전 12:9	지도자의 은사들 롬 12:8; 고전 12:28
지식의 말씀 고전 12:8	치유의 은사들 고전 12:9,28	일반적인 봉사들 롬 12:7

예언의 말씀 고전 12:10,28; 롬 12:7	언어 (방언들) 고전 12:10,28	도움의 은사 고전 12:28
가르침의 은사 고전 12:28; 롬 12:7; 엡 4:11	방언 통역의 은사 고전 12:10,30	나눔의 은사 롬 12:8
전도자의 은사 엡 4:11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고전 12:10	자비의 은사 롬 12:8
사도의 은사 고전 12:28; 엡 4:11	이적의 능력 고전 12:10,28	접대의 은사 벧전 4:9
권면의 은사 롬 12:28		목회의 은사 엡 4:11

요한네스 매걸 (재림, 1999) s. 121

이 두 요소들 곧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이 우리의 본성에서 그리고 우리의 말과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한다.

성령 안에서 하는 생애를 위한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복을 위하여 매일 기도드리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믿음으로 간청하는 일이다. 그런 기도의 본보기는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 책 제4장에서 볼 수 있다. 독자들이 이런 기도의 효력을 증언하는 경험들을 말하였다. 이것은 독일 라인랜트에서 보내온 것이다. “우리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매일 함께 기도하였으며[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에서] 나는 5개월 동안 친구와 함께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관계와 결혼 생활에서, 영적인 영역들에서, 교회에서 그것은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자연스런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놀랐으며 생애를 더 쉽게 만드시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정련과정을 그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치에 끼치시는 긍정적인 효력을 이 증언이 보여주는 것을 알겠는가?

그 간증은 계속된다. “최근에 한 자매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 내가 항상 마음에 그렸던 것이지만, 그 길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의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시작에 불과합니다.’”(하우바일 목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자매는 매력적인 신앙을 발견하였다.

3. 예수님을 증거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예수께서는 그분의 증인들이 되려면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부흥과 개혁을 경험할 것이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은 “부흥은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구원의 기쁨이 그 마음을 채울 즈음에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그의 안에서 불타기 시작한다. 깨어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갈망한다.”(40일 기도, 2권, 24)

엘렌 화잇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 없이는 아무 마음도 감동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무 죄인도 그리스도께 이끌지 못할 것이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연결 되는 때,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의 것이 되는 때, 그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와 가장 무식한 사람이 마음에 호소할 능력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감화력의 발현을 위한 통로로 삼을 것이다.”(능력을 받으리라, 307)라고 말한다.

널리 알려진 전도자이며 부흥 목사인 토레이는 놀라운 경험을 말한다. 매우 유능한 부목사가 두 시간이나 한 사람에게 구원에 대하여 말했으나 아무 것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토레이 목사님에게 부탁하였다. 10분 후에 그 사람은 긍정적인 결심을 하였다. 토레이 목사님이 그가 사용한 같은 성경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목사는 할 말을 잃었다. 토레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가 아무 것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능함을 깨닫고 성령께서 이 일을 친히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였으며 그분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부흥은 사명을 가져옴

“그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능력으로 이 기별을 전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성령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능력을 받으리라, 286)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습과 사랑의 연합에 마음이 끌리도록 계획하셨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과 가족의 일원들에게 진실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친척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친구들과 나그네들에게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우리 신앙에 반응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인도하실 수 있다.

다음 말씀은 우리의 품행이 끼칠 수 있는 감화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보여준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인정 많고 동정적이 된다면, 지금 회심자가 하나 밖에 없는 곳에 100 사람이 있을 것이다.”(9증언, 189)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일에 절대로 필요한 분이시다. 엘렌 화잇은 다음에 목회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들[교인들]의 영적 힘은 미약해졌으며, 그들의 지지부진한 절름발이 체험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도록 하신 사업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게 했다. 그들은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영혼들을 책망하고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크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제시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청과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다. 진리의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이들은 기쁨으로 추수해 들일 것이다”(목사, 175)

영적 각성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1893년 미시간 주 배틀크리프 재림교 기관들에서 부흥이 일어났으나 곧 소멸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우에 대한 통찰을 엘렌 화잇에게 알려주셨다. 그녀는 “만일 모든 영혼들이 각성하여 하나님께서 나누어주라고 저들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일에 즉시 착수했다면 저들은 더욱 많은 빛을 받았을 것이며 더욱 큰 능력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1기별, 129)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더 많은 빛과 더 많은 능력을 받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귀중한 반향이 일어난다. 이것이 40일 기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를 권장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40일 기도, 1,2권 서론)

우리의 선교는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그들의 선교를 시작해야 하는지 말씀하셨다. 그들은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가정과 아는 사람들에게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 예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계획하셨는가? 만일 증거에 조화롭고 사랑스런 품행이 동반된다면,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증언이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 우리 삶의 증거는 입술의 증언과 일치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진정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가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어떤 중요성을 가졌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3:34,35**에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성령 충만한 생애는 더 중요한 성령의 열매 곧 온유로 안내한다.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며 선한 공동체에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직후에 새 계명을 주신 이유이다. 세족예식은 온유의 표현이었다.

온유는 자연인의 특성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가 **6:8**과 같은 그런 약속들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매일 간청할 수 있다.

온유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매우 중요한 특성이지만 보통으로 그것은 많이 오해되고 있다. 새 계명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헬라어 거룩한 사랑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이 사랑만을 가질 수 있다. “...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5).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성별되지 않은 마음은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산출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속에서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행적, 551)

그러므로 실제로 온유는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계시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삶에서 모든 것을 그분께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하는가? 우리는 우리 생애를 온전히 그분께 드렸는가? 우리는 매일 이것을 확인하는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매력적인 신앙을 가졌는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가? 만일 그렇다면, 나는 이 매력적인 신앙을 돌보고 성장시켜야 한다. 그러나 만일 매력적인 신앙이 아직도 내게 없다면, 나는 확실히 이 중요한 질문을 대면해야 한다.

나의 책 개인적이 부흥의 단계들과 데니스 스미스목사님의 책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력과 기도 책에서 이 매력적인 신앙을 발견하는데 대한 도움과 이 신앙을 돌보는데 대한 도움이 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그대가 이 책들을 한 번 이상 읽기를 권한다.

성령의 부족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적 그리스도인들이다(고전 **3:1-3**; 롬 **8:1-17**; 갈 **5:16**). 이것은 구원 받은 상태가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우리는 자신의 인간적인 재능과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슬프게도 우리 가족과 자녀들 역시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헬mut 하우바일의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 **36, 74, 76**을 보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마음에 간직하자. 엘렌 화잇은 “그리스도의 부드럽고 매력적인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없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하는 능력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에 있어서 부드럽고 동정 있는 정신으로, 저희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향상시킴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한다.”(행적, 550-551)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때에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자연스러운 태도로 하나님을 증거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마 12:34)

마음을 끄는 신앙은 얼마나 귀중한가?

믿음을 포기하기보다 차라리 불이익과 핍박과 재산의 손실 혹은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때에 우리는 이 매력적인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지 볼 수 있다. 이 심한 고난에서 그들을 그리도 탄력 있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었다는 증거를 보는 한편 순교자들은 죽음의 고뇌에서 어떻게 느꼈는지는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콘스탄스의 화형대에서 죽은 허스와 제롬에 대한 교황청 보고서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만일 누군가 불길에 싸여 타버린다면 다만 비명을 지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찬송가를 불렀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들은 그런 혹독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참 기쁨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소망, 153)

18세기 불란서에서 위그노[불란서 개신교] 듀란트 가족은 감동을 주는 본보기이다. 듀란트 가족은 성경 상 신앙 때문에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아버지는 용서받기까지 **14**년을 감옥에 있었다. 어머니는 옥사하였다. 열성적인 설교자 아들 피에르는 처형당하였다. 딸 마리는 다른 여인들과 탐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다. 만일 그녀가 신앙을 포기했다라면 풀려났을 것이다. **1758**년 그녀는 **38**년의

감옥생활 후에 출옥하였다. 마리 듀란트에게 성경 상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신앙이었다.(위키 백과, “마리 듀란트”)

대 선교영향력의 본보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른 음식을 요구하였을 때 대면할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분은 그들의 순종에 축복하셨다. 그들은 다른 청년들보다 더 멋지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지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높은 지위를 받았다. 우리는 풀무 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과 사자 굴에서 밤을 지낸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세계적인 두 왕국이 참 하나님에 대하여 말과 행위로 나타낸 그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모본은 전도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애굽에 있던 성실한 요셉도 그와 같다. 그는 여섯째 계명 범하기를 거절하였다. 보디발의 아내의 중상 때문에 그는 수감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에 대하여 세계적인 제국 전체가 알도록 그의 충성을 사용하셨다.

나아만의 가정에서 노예로 일하던 소녀를 기억하는가? 말과 행위로 한 그녀의 증언은 결국 이 군대 장관의 회심을 이끌어 내었다. 나는 그가 큰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를 뿐 아니라 많은 선물과 함께 그 소녀에게 자유를 주고 친히 그를 집으로 데려갔으리라고 확신한다.

마태복음 **13:44-46**에서 예수님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 보물은 그에게 매우 가치가 있어서 그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는 하늘나라 혹은 내가 묘사한 것처럼 매력적인 신앙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이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지 볼 수 있는가?

마지막 생각들

엘렌 화잇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명랑하며 기쁘게 될 것이다.”(5 증언, 626)라고 말한다. 매력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항상 기쁘고 활기차며 승리하는 행복한 삶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기초가 든든한 신앙을 선사한다. 어려운 시간에도,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여전히 마음을 이끌 것이다.

마음을 끄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공동체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이 우리 신앙을 불붙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 됨의 대단한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바란다!

그분께서 우리 자신의 기쁨과 축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며, 또한 그분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료 인간들의 마음을 이끄시도록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바란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10).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할진대 우리는 그의 봉사가 즐거운 일임을 사실 그대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정로, 115-116).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름이 가장 활기찬 삶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하여 당신께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온 생애 동안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하도록 저의 생애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적인 속고와 토의 지침

1.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효과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3.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인가?
4. 우리의 개인 생애에서 부흥이 주는 효력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어떻게 동기유발 시키는가?
5. 하나님께 두는 단순한 신뢰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의 본보기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 시간

-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성령의 열매가 그대 안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2. 성령의 은사들을 알고 바로 사용할 능력을 위하여
 3. 그대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용기와 기쁨을 위하여
 4.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기쁨을 위하여, 침착한 마음자세와 지혜를 위하여

간증

순복 후에 변화된 일상

2014년 초에 나는 계속 스스로 묻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나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인가? 나는 미련한 처녀들 중의 하나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기 원하였지만 나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로 나는 항상 떳떳하지 못한 양심을 가졌으며 항상 바른 행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각은 나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나는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과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는 두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책을 처음 읽은 후에 나는 나의 삶에서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더하여 나는 바로 몇 달 전, 영적 그리스도인이 된 헌신한 자매로부터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는 올해 초에 자신을 “육적”이라고 생각했으며 내가 죽으면, 예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것임을 지금 확신합니다.

나의 온전한 순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달 만에 나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새벽 **4:30**에 일어납니다. 내 자신의 실력으로 이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로 내게 잠자는 일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전과 다르게 기도합니다. 나는 매일 그 날에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나는 매일 내 마음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나는 더 분명히 “여성”답게 생각하고 옷을 입습니다.

또한 나는 계속하여 먹는 일을 더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멈추는 것은 불가능했었습니다. 나는 매일의 요구들에 평화롭게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내 위장을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3주** 후에 내 남편도 나의 변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신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있으면 나는 갑자기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많은 의문들이 생깁니다. 이제 나는 더 깊이 연구하기 원합니다. 이전에 성령께서는 다만 간헐적으로 간증하일을 주셨습니다. 이제 매일 그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말하려고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대화하는 상대를 아시기에 필요적절한 말을 주십니다. 내는 때때로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죄를 밝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나는 곧 회개하고 나의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매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필요로 함을 깨닫습니다. 나는 또한 교만(내가 얼마나 선하며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의 반대는 겸비임을 깨달았으며 그것은 예수님 없이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커피를 끊는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닷새 동안 무서운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이전에 이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심한 금단증상이었습니다. 이때는 내게 물려올 무서운 결과들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만 더 이상 마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요즈음 나는 그것에 대한 욕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육식에 대하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 가족과 나는 육식 끊기를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요즈음, 그것은 내게 자유롭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욕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내 생애에서 전환점은 영생에 대한 큰 소망과 어떤 결과에도 불구하고 내 구주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에스겔 **36:26,27**은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여러 다른 문제들과 투쟁했지만 항상 실패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바라시며 다만 나의 자원하는 마음만 필요하셨습니다.

엘렌 화잇은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하늘에 도달하려는 사람은 불가능함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35년**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지적으로 나는 계명에 동의하였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만 내 안에서 선을 성취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선하고 건전한 일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날 나는 로마서 **8:14**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귀는 결코 즐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나는 매일, 매시간, 계속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청해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37**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마 10:3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께서 내 마음에 사시면 우주의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내 자녀들과 가족들을 돌보실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만 전지전능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는 매일 나의 삶을 그분의 손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분의 지혜와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M.**

M.

부록

더 많은 연구를 위하여

중요한 제안: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라. 교육적 연구는 우리 생애에서 중요한 주제를 철저히 이해하려면 여섯 번 내지 열 번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도해 보라. 결과가 여러분을 확신시킬 것이다. 내가 어떤 책을 여러 번 읽었을 때, 나는 성령의 충만을 처음으로 경험하였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생애 가운데서 성장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는 간증들을 편지로 받았다. 그것들 중 거의 모두는 집중적으로 그 책자를 여러 번 다시 읽은 독자로부터 왔다.

성령 충만한 생애의 새로운 경험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7:38-39)고 말씀하셨다. 그대를 위한 요청이 있다.

그대가 예수께 순복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경험들을 가졌고 나에게 짧은 글을 보낼 수 있다면 진정 감사하겠다. 만일 우리가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testimonies와 편지로 경험들을 나눌 수 있다면 매우 가치 있을 것이다. 규칙은 다만 약자로만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대의 경험은 우리의 위대하시며 곧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시작하거나 자라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연락처:

Helmut Haubeil

Rosenheimerstraße 49

D-83043 Bad Aibling / Upper Bavaria

Email: helmut@haubeil.net

Tel. + 49- (0) 8061-4900 712

Languages: German or English 언어: 독일어나 영어

다른 간증: 현재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드와잇 넬슨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의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것은 나의 영혼에 대단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에 나는 성령에 대한 다른 내용들을 들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현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접촉하시려고 이것을 선택하셨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한 가지를 증거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장에서, 질주하는 바쁜 삶에서 잠시 멈추어서 다시 생각하도록 우리 마음에 강하게 전해주는 매우 힘 있는 진리를 단순한 방법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읽는 과정은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토의하고 설교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에 대한 주제는 다시 더욱 더 많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처음 듣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첫 장을 다 읽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주제를 다루는 설교를 적어도 3번 하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더 잘 설명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책 읽기를 멈출 수 없었으며 나의 교회들은 그 결과를 느꼈습니다. 나는 목소리로 전하였으며 지난해에 나의 교회들은 눈에 띄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우리 교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 해에 더 많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D. R. 2018년 1월 발췌

드와잇 넬슨 수석 목사(앤드류스 대학교 선구자 기념 교회)는 이 작은 책[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켰으며 나는 그대들에게도 같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분은 “무(無)에서 새로운 개혁: 어떻게 성령으로 침례 받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세 번 설교하였다. 그분은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에서 인용하고 권장하였다. 그 결과 수천의 올려 받기와 책들을 주문하게 하였다.

그의 개인 간증과 세 번의 설교는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에 나온다.

No. 1 14일 14가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개종 목표물
14 DAYS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헬무트 하우버일 목사는 일선 목회자로 비즈니스맨이다. 선적정사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중역으로 근무하던 중 그의 나이 37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목회로 나가 일선 목사로 16년 봉직했다. 그 이후 하우버일 목사는 독일의 바르나 아이볼링에 위치한 재림교단 앙로원의 원장을 역임했고, 은퇴후에는 중앙아시아와 인도에서 선교 사업을 일으키는 일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현재는 자신이 설립한 '미션브리프(Missionbrief)'라고 이름한 독일어 미션 뉴스레터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음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능력이 전달되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에 주리고 목말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살피지 않는가?"

- 이지 화잇, 교회증언 제 8권 22쪽

헬무트 하우버일
Helmut Haubel

예수님 안에 거함

어떻게 해야 하나?

헬mut 하우바일 목사는 사업가이며 목회자이다. 운송회사의 총 관리자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다가 3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였고 16년 동안 목회자로 봉사하였다. 그 다음 그는 독일 뮌헨 근처 배드 에이블링에서 재림교 은퇴자 공동체를 관리하였으며 은퇴 후에는 배드 에이블링 교회의 세계적 선교 단체를 이끌고 있다. 그는 중앙아시아, 인도와 독일에서 개척 선교사들을 통한 교회 개척과 선교 잡지를 편집하고 발행하며 부흥 문헌을 전하는 일을 포함하여 지역과 국제적으로 여러 계획 사업들을 돌보고 있다. 자신을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의 저자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작은 도구로 여긴다.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에서 **Development**로 들어가면 이 놀라운 경험들을 밝히 볼 수 있다.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권장: 개인적인 연구 후에 두 사람 씩 매일의 헌신의 시간을 갖는다면 이 귀중한 진리들은 특별한 축복이 될 것임을 경험에서 알 수 있다. 부부들에게는 두 배의 축복이 있다! (전화나 스카이프로도 다른 사람과 할 수도 있음) 또한 매일 혹은 매주 단체로 대화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